

HUBLOT

H E A R T O F F U S I O



위블로
빅뱅 유니코.
유니코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 인하우스 무브먼트,
72시간 파워 리저브, 킹 골드 케이스와 세라믹 베젤,
쉽게 교체 가능한 스트랩.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02 2118 6208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 02 3213 2238
갤러리아 EAST 02 540 135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 3479 6021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 660 3132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 245 2221
롯데백화점 부산 서면점 051 810 4128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051 745 1246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15
vol.131



cartier.co.kr

Cartier

BURBERRY



Dior PRESTIGE

NEW 디올 프레스티지 라 크림므

장미에서 피부로 전해지는
강력한 생명력과 결점 없이 완벽한 아름다움

로즈 드 그랑빌의 놀라운 생명력을 담아내기 위한 15년 간의 연구

그랑빌 절벽의 거친 환경 속에서 피어난 장미로부터 7세대에 걸쳐 탄생한 디올 장미는 섬세한 피부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재배되었습니다. 디올 사이언스는 로즈 드 그랑빌이 지닌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 연구하였고 첨단 추출 과정을 통해 새로운 디올 프레스티지 라 크림므에 담아냈습니다. 디올 프레스티지 라 크림므는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고 모든 피부에 강력하게 작용하여 피부는 특별한 디올 장미의 놀라운 힘으로 가득 찹니다.

당신의 손 끝에 느껴지는 장미 꽃잎처럼 섬세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부드럽고 섬세한 텍스처로 피부는 더욱 탄력이 넘치고 건강해지며 은은한 광채와 젊음으로 빛납니다.





GUCCI

OMEGA

스펙터

007

IN CINEMAS



JAMES BOND'S CHOICE





48



18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시선을 압도하는 볼드한 디자인과 극도의 광채를 자랑하는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소스피로 링이다. 까르띠에 매종의 하이 주얼리 기술을 고스란히 담은 이 아름다운 링은 10.33캐럿의 메인 스톤을 중심으로, 총 1.36캐럿에 달하는 3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총 2.14캐럿의 48개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궁극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이트피사다. 문의 1566-7277



38



14

- 18 **THE AESTHETICS OF PAIRING** 섬세한 와인 페어링, 우아한 샴페인 페어링, 강렬한 위스키 페어링과 경쾌한 파이가 넘치는 화이트 스파이트 페어링 등 삶을 풍요롭게 하는 페어링의 세계를 소개한다.
- 20 **JEWEL ON HIGH** 반짝임으로 가득한 꿈속의 풍경, 환상적인 이름 다움, 정교한 하이 주얼리의 매력.
- 22 **CLASSYTIME** 시간을 표현함에 있어 가장 담백하고 매력적인 애티튜드를 담았다. 매력적인 여성의 표상, 매시 워치.
- 24 **DREAM JACKET** 스타일을 즐긴 줄 아는 남자라면, 다채로운 프린트와 디테일을 겸비한 재킷의 향연에 동참하라.
- 26 **FALL'S IT COLOR** 당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물들일, 가을빛을 담은 컬러의 매력 속으로 초대한다.
- 28 **SHOES ADDICTION** 이번 시즌 어떤 슈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주목하라.
- 32 **DIVINE SPARKLE** '사람의 말보다는 말 못하는 보석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명언처럼, 그라프(Graff)의 보석은 전 세계 여성을 뒤흔들고 있다.
- 34 **SIMPLE IS AN ART** 워치메이커로서 진지한 자세를 이어나가는 까르띠에의 고귀한 가치를 담은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한다.
- 36 **2015 F/W 7 KEY TRENDS** 2015 F/W 트렌드 리포트.
- 38 **BE COOL** 요즘 가장 트렌디한 룩을 차려입은 남성들의 우아하고 화려한 포트레이트.
- 46 **HYBRID SPORTIVE** 활동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간결하지만 남다른 유니크함이 묻어난다. 랑방스포르츠 2015 F/W 컬렉션.
- 48 **TOUCH OF A MASTER**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브랜드 에르메네질도 제나가 도쿄에서 실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 49 **THE MODERN CLASSIC** 수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팔질레리(PAL ZILERI)가 젊은 고객들의 취향까지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 50 **THE SOUL MATE** 몽블랑(Montblanc)이 은밀한 커플 향수, 엠블렘(Emblem)과 레이디 엠블렘(Lady Emblem)을 제안한다.
- 51 **TRUE STORY OF MY LIFE** SK-II의 한국 공식 모델, 배우 탕웨이 가 말하는 체인지 데스티니(Change Destiny).
- 52 **RESET YOUR SKIN** '크레마 네라 아쿠아 판텔라리아'라면 피부를 과거로 되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53 **OIL FROM NATURE** 오로지 100% 유기농 원료만을 담은 얼굴 가꾸기 오일은 엠베터를 대표하는 피부 맞춤 맞춤 오일이다.
- 54 **SMART DEVICE** 캐논의 고성능 DSLR EOS 760D와 스마트 디바이스 '캐논트 스테이션 CS100', 이보다 더 쉽고 편리할 수 없다.
- 55 **IMMORTAL MASTERPIECE** 휘슬라가 선사하는 최상의 제품, 프리미엄 아시안 라인 더 크래프트 컬렉션.
- 56 **PERFECT PRESTIGE** 지금, 오랜 시간에 걸친 연구와 노력으로 탄생한 다들 프레스티지 라인에 주목해야 할 때다.
- 57 **EDITOR'S PICK**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위해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미리 체험해본 이들의 코즈메틱.

Style 조선일보

Issue.131 October 2015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김지혜 jhy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법 그래픽스
 인쇄 | 타라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베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Jewel JUST FOR ME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강렬한 상징이 되어줄 단 하나의 주얼리.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랙 오피스 소재의 매직알함브라 롱 네크리스 **에반윈드 반들리프 아젤**, 코스모스에서 영감을 받은 심플한 디자인의 오피스 네크리스 **50인원대 루시에**, 그린 스톤과 알함 모티브로 완성한 **베를리 컬러 배리케이선 링 가렛 미팅 반들리프 아젤**, 행운을 상징하는 별 모티브를 주제로 표현한 **에브스트라 스타 네크리스 2백50만원 타사키**, 골드 본디자인 7법으로 세공한 **새벽 보행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에반윈드 부세본**, 사물에서 새롭게 선보인 **클링 모티브의 데일리 주얼리 코코 크리시엘로 골드 스톤 사이즈 2백만원대 사일 화이트 주얼리**, 원형 핀디자인 블랙 오피스 디자인을 세팅한 **아틀라드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5백만원대 카르띠에 에디터 베이비**



Fashion BOHEMIAN FRINGE

깊이를 상징하는 **보헤미안 루즈**가 이번 시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액세서리에서도 리드컬러가 흔들리는 **프린지 디테일**이 강세다. **히피 스타일**이 정점을 이룬 1970년대 아이콘이자 맥 재기의 연인인 **미란 페인**과 영화 **(라브 스트라)**의 알리 맥그로처럼 자유분방함과 사랑스러움이 공존하는 매력 때문일다. 심플한 가을패션에 기본 중계 **출발할 프린지 액세서리**의 향연.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뒷꿈에 미치 꼬리가 달린 것처럼 느껴지는 프린지 디테일의 스웨이드 **포니테일 부티 3백만원대 바버리**, 강렬한 오렌지 컬러가 제일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프린지 백, 다른 액세서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프린지 장식이 스타일링에 포인트가 되어 줄 것. 1백50만원 **과메리 이리디**, 앙증맞은 대슬 장식을 다채 발랄한 분위기 연출에 제각인 스웨이드 프린지 바킷 백 **2백50만원 로저비 비에**, 비즈로 장식한 프린지와 여성스러운 리본 디테일이 특징인 미니 크로스백 **1백만원대 크로스한 루브랭**, 프린지 아가일이 부딪스로운 이틀이리엔 작은 액세서리를 활용할 것. 동전 지갑으로도 사용 가능한 컬러 블록 키링 **20만원대 파메리 이리디 by 본디앤**, 에디터 **김자혜**



Beauty WEAR THE SCENT

패션 디자이너들의 향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담은 패셔너블한 미자이 나기 타지, 패션 하우스의 퍼퓸 컬렉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젠트 알라이아만큼 여자의 몸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디자이너가 또 있을까. 77세의 노장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관능적인 드레스는 여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파티시에 대한 본능을 일깨운다. 이런 그의 첫 번째 향수, **알라이아 파피**는 그의 컬렉션처럼 **보타가 베네타 시크리 오 퍼플**은 차를 맡아보는 향이라고 개성 있게 개성 있게 강하다. 보틀에 묶은 가죽 끈이 증명하듯 하우스의 상징인 가죽의 부드러운 향을 표현했는데, 시보레 노트를 중심으로 관능적인 재스민 향이 조화를 이룬 **향미 매력 작아 50ml 14만원**, 스텝드 모양의 보틀만 보아도 브랜드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발렌티노 도나**, 도드란 발렌티노의 유즈를 연상케 하는 향수로, 첫 향은 달콤하면서 스미시 사람이 느껴지고, 뒤로 갈수록 **아틀라드 레디**, 바닐라의 부드러운 향이 강렬면서 색다른 향이 돋보인 **다(100ml 16만원)**, 리본을 두른 아이코닉한 유리 보틀의 끝으로 향수의 내 번째 스텝, **옐로 에드 투윙**은 바닐라에 올라오는 화이트 로즈 꽃잎 사이로 실감나는 시몬 드레사처럼 프라시하고 여성스러운 향이다. **베르가모트**, 레몬 향이 화이트 로즈를 만나 가볍고 부드러운 정미 향을 선사한다(50ml 12만원), **모던엔드**도 대담한 블랙 보틀만 봐도 디자인이 넘치는 로드리게스가 선보이는 의상을 상상할 수 있을 것. 뉴욕을 대표하는 미니멀리스트인 그가 만든 **니르나스 오드 투윙**은 우아한 화이트 피오리와 마스크, 우디 노트가 더해져 도시 여성을 위한 매력적인 향을 선사한다(50ml 11만원), **메시 존 파우더**란 흑 사크 록을 선보이는 발랄한 남성 향수, **빌링 울드 오드 투윙**은 발랄 재질을 연상케 하는 보틀 실루엣과 경장 디테일, 이글 스타드의 대담한 조합으로 시선을 압도한다. 향 역시 **베르가모트**, **사프론**, **통카 빈통**이 조화를 이뤄 남성의 카리스마를 부각한다(100ml 12만5천원),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rink 화끈하게 펼쳐진 맥주업계 디자인 경쟁

옥토버페스트의 계절이 왔다. 여름에도 맥주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듯한 맥주 축제인 열려가는 가을이 도래한 요즘에도 관심은 결코 사들지 않는 듯하다. 우리나라 맥주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한 토종 브랜드 대 수입 브랜드의 대결은 맛뿐만 디자인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도 불만하다. 지난해 세계 최대 맥주 그룹 AB인베브에 인수된 오버맥주는 오지널 그라피티(OG)라는 공법을 활용해 원맥주 농도가 높다는 독일 밀 맥주 프리미어 OB 바이젤을 선보인 데 이어 신선한 디자인을 내세운 카스 비츠(Cass Beatz)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맥주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본사인 AB인베브의 글로벌 디자인 플랫폼을 채용했다는 카스 비츠는 강렬한 코발트 블루 색상에 유려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보틀 디자인부터 눈길을 확 잡아끈다. 젊은 층이 열광하는 EDM(Electronic Dance Music)을 위주로 한 비트 중심 음악의 역동성을 디자인으로 풀어냈다. 체코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맥주 필스너 우르켈(Pilsner Urquell)이 선보인 새로운 디자인도 시선을 끈다. 보틀(330ml) 디자인의 경우, 1백73년 브랜드 역사의 전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스너 우르켈을 처음 담은 맥주병과 같은 갈색을 입혔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면서 현대적인 세련미가 묻어 있는 뉴 헤리티지 패키징(New Heritage Package)으로, 캔은 싼뜻한 녹색이다. 네덜란드의 프리미엄 맥주 그롤쉬(Grolsch)는 상큼한 연꽃빛이 감도는 스페셜 에디션 패키지를 내놓았다. 양종 4백 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벌 캠페인 지원에서 보틀에는 기념 로고를 새겨 넣었고, 캔에는 다양한 개성이 묻어나는 아트웍을 입혔다. 그롤쉬 캔에 새긴 아트웍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4백여 명의 아티스트가 암스테르담에서 3일 동안 열린 행사에서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그롤쉬 스타일링 보틀을 재해석한 작품들이 다그를 수 있는 맥주의 향과 풍미를 잊지 않기 위해 일반 맥주 뚜껑과 다르게 삼페인 병에 사용하는 스타일링을 적용해 개봉 시 "헛" 소리가 난다. 에디터 **고성연**



Bruce Gagner
Solair, 1985
painted ceramic, plaster, copper tube 19 x 14 x 15.5cm

Exhibition 브루스 가니에 <Masks>展

가진 표면과 울퉁불퉁한 휴먼얼굴이 지어내는 양감이 상당히 인상적인 인체 조각을 감상할 수 있는, 작지만 흥미로운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평생 인체를 모티브로 삼은 조각 작업을 해온 미국 작가 브루스 가니에(Bruce Gagner)의 국내 첫 개인전인 <마스크(Masks)>전이다. <포크 테이블> 같은 라이프로타일 전시, 각종 미술 사적을 한글로 옮긴 번역가이자 책을 쓰는 작가인 박상미 대표가 운영하는 서촌구 서촌의 이담한 갤러리 토마스 파크(Thomas Park)에서 오는 10월 10일까지 열린다. 조각메타의 후손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가니에가 보여주는 인체 조각은 기괴해 보일 정도로 어기자기 두툼하고 군데군데 과장된 모양새로, 실존적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면 다소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이번엔 한국에서 선보인 마스크 연작은 그의 조각 방법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라고 한다. 도예가들이 휴먼얼굴을 만지면서 전체적으로 양감을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시리즈라고. '표면을 통해 영혼의 내부'를 드러내는 듯한 가니에 특유의 조각 언어가 느껴지면서도 그의 인체 조각에 비해 훨씬 어두워진 모리께 귀여운 인상을 주기에 근근한 매력도 발산되는 작품들이다. 예매료 운영한다. 문의 02-723-2973 에디터 **고성연**

ART: SPRIOR PRADA.COM

PRADA EYEWEAR





물세탁이 가능해 더욱 실용적인 핑크 라운드넥 스웨터 31만8천원 만상웨어.



클래식한 스타일의 레이아웃 골프화 44만원 에코 골프.



활동 포인트의 움직임 안전장착 만상웨어.



유틸리티는 스타일 위를 잇는 스타일 파운데이션 만상웨어.



www.titleist.co



가볍고 유연한 착용감으로 안정적인 스윙을 도와주는 하이퍼플렉스 골프화 28만원 풋조이.

세련된 컬러 조합과 감각적인 소재의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는 캐디백, 85X45cm, 44만원 타이틀리스트.

for him Selection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멋진 스윙과 함께 스타일리시한 필드 룩을 뽐낼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강아지 장난감을 연상케 하는 그린 컬러와 호날두의 백 넘버를 새겨 특별함을 더한 포물러 크리스토퍼 누 호날두 에디션 워치 1백80만원대 태그하이어.



매달 프레임 선글라스 40만원대 프리다 by 룩스타가 코리아.



손에 힘 주는 착용감의 우수성을 볼수록 스포츠맨들 가장 선호하는 풋조이.



스포츠한 디자인의 민트 컬러 파우치, 25X14cm, 19만원 캐비닛 by 란스이어.

견고한 타구감을 자랑하는 류주라 X5 47만원 타이틀리스트.



해골과 'golf or die'라는 워트 있는 슬로건을 새긴 골무공 2만9천원 (3개 한 세트) 마크앤로나.

클래식한 체크 정미 39만8천원 책 니블라우스.



카툰 캐릭터 보스캐백 46X31cm, 53만8천원 마크앤로나.

스트라이프 워칭 벨트 17만9천원 제이렌드버그.

- 만상웨어 02-2007-8820
- 에코 골프 031-798-1872
- 파라게이즈 02-2049-6821
- 풋조이 · 타이틀리스트 02-3014-3800
- 란스이어 02-542-4177
- 룩스타가 코리아 02-501-4436
- 마크앤로나 02-310-1537
- 제이렌드버그 02-6979-0263
- 책 니블라우스 02-3677-3677
- 태그하이어 02-776-9018



Tod's Korea Inc. 02 3448 8201



TOD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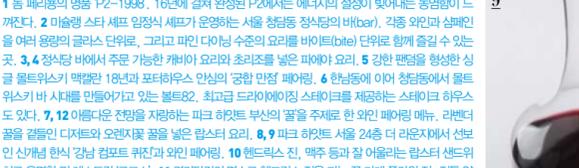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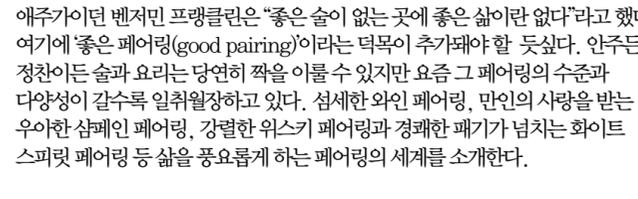
the aesthetics of Pairing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인 술을 위하여 건배!”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심슨네 가족들(The Simpsons)>의 주인공 호머 심슨이 남긴 명언이다. 심슨 같은 애주가 캐릭터가 아니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술은 많은 이들에게 해악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삶의 즐거움과 영감을 가져다주기도 하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결국 술이 아니라 인간이 나쁜 것일 테니까. 다행히도 요즘 한국의 술 문화는 점점 폭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과음과 폭음이 잦은 회식 문화가 바뀌고 술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유흥 주점보다는 전문 바(bar)나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자택에서 술자리를 갖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술을 함께하려는 성향 덕분에 주류와 술 문화의 다양성도 무럭무럭 커지는 모양새다. 그중 하나가 술과 미식의 조화를 도모하는 페어링(pairing) 문화다. 페어링이라 하면 흔히 와인 페어링을 떠올리지만, 요즘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샴페인 페어링, 위스키 페어링 등 다채로운 페어링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정 음식이 잘 어울리는 술을 찾는 이들뿐 아니라 각종 술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짝꿍 요리를 찾아다니는 페어링 애호가도 증가하고 있다. F&B(Food & Beveridges)가 아니라 B&F가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사실 술이 미식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든, 요리가 술의 풍미를 극대화하는 것이든 그 선후(先後)는 그리 중요치 않을 것 같다. 섬세한 조화와 절제, 공유를 추구하는 페어링의 메커니즘 덕에 술자리가 보다 건강하고 즐거워진다면 말이다. 그래서 심지어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이들도 궁북 음주에 대한 부담이 없고 마음 놓고 ‘안주발’ 세워도 되는 페어링 메뉴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돔 페리뇽 P2와 임정식의 만남, 범접하기 힘든 카리스마와 매력
미식가라면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어지지만, 그럴 의향이 있을만한 서울 청담동 정식당. 한인 셰프 최초로 2년 연속 미슐랭 2 스타를 따낸 임정식 셰프가 이끄는 정식당 1층에 지난해를 근사한 바가 들어섰다. 이곳에는 20여 종의 다양한 와인을 글라스 사이즈별(150ml, 75ml, 30ml)로 판매하도록 해주는 디지털 와인 디스펜서가 설치되어 있어 각자 원하는 용량만큼 마실 수 있기도 하고, 심지어 돔 페리뇽(Dom Pérignon) 같은 최상급 샴페인도 반 잔(75ml)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이 바의 또 다른 매력은 2층에 자리한 레스토랑으로 올라가 지않더라도 임 셰프표 요리를 안주 삼아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올해 선보인 돔 페리뇽 빈티지 2005와 초리조를 넣은 소스를 곁들인 바삭한 문어 요리 같은 파인 다이닝

메뉴를 바에서 시킬 수 있다. 그것도 몇천원에 혼자서 한 입에 꼭 넣을 만한 B(bite) 사이즈로도, 둘이서 맛볼 만한 작은 사이즈(S)로도 주문 가능하다(물론 좀 넉넉한 안주로 점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보통 점심(R) 사이즈로도). 여러 가지 주류와 요리를 매칭해보면서 그야말로 다채로운 페어링의 미학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장소인 셈이다. 따로 예약 주문을 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빈티지 샴페인인 돔 페리뇽 P2-1998을 예로 들어보자. 무려 16년에 걸쳐 완성돼 매혹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P2를 선택한다면 아무래도 샴페인의 영원한 짝 캐비아만큼 탁월한 스타트 메뉴를 찾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식감 좋은 브리오슈에 얹은 캐비아의 짭조름한 맛이 농익은 P2의 빼어난 광물성과 어우러져 몹시도 상쾌한 시너지를 낸다. 수비드(진공포장한 재료를 저온에서 요리하는 방법)로 요리한 달걀노른자를 얹은 옥회, 쫄깃한 초리조를 넣은 매콤한 파에야, 바삭한 돼지고기가 일품인 보쌈 등은 정밀함과 강렬함을 동시에 갖춘, 결코 세계 패리는 일 없이 살짝 건드리는 듯한 느낌을 담았다는 P2의 다면적인 매력을 이끌어낸다. 정식당 바를 이끄는 신동혁 소믈리에에는 “살짝 매콤한 요리를 샴페인과 매치하면 특유의 씩씩한 맛과 은근히 잘 어우러지는 묘미가 있다. 바에서 추천을 받는 동시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두세 가지 요리를 골라 맛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리 한 입, 샴페인 한 모금의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변화무쌍한 와인 페어링을 시도하는 파크 하얏트 서울
와인은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페어링 메뉴의 창의성도 날이 갈수록 날개를 펴는 영역이다. 최근 파크 하얏트 서울 24층에 위치한 더 라운지에서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한식’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운 ‘강남 콤포트 퀴진(Gangnam Comfort Cuisine)’을 야심차게 선보였는데, 그 이름처럼 메뉴의 면면도 상당히 흥미롭다. 예를 들자면 단일 올라온 제주산 생선에 김과 새콤한 초장 무스를 곁들여 시식회에서 탄성을 이끌어낸 퓨전 회 요리 ‘회(Hoo)’ 같은 메뉴다. 마시멜리아노 지아노 파크 하얏트 서울 총주방장과 백영민 한식 마스터 셰프의 콜라베이션으로 탄생한 이 새로운 한식과 미각의 합을 이룰 와인 페어링을 시도해봤다. 먼저 전적으로는 한우 소 꼬리 테린에 피클, 깻잎 페스토를 가미해 부드러우면서 감칠맛 나는 꼬리 편육, 파크 하얏트 서울의 F&B 매니저 엘리스테이아 민티는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 지역의 대표 와인인 바르바레스코(Barbaresco, 2011)를 택했다. 마른 과일의 녹진한 향이 묻어나며 상쾌한 허브 향까지 느낄 수 있는 이 와인이 타닌의 구조도 탄탄하고, 보디감도 적당해 꼬리 요리와 잘 어울린다는 이유에서다. 메인 요리로 자주 추천하는 ‘삼계구이(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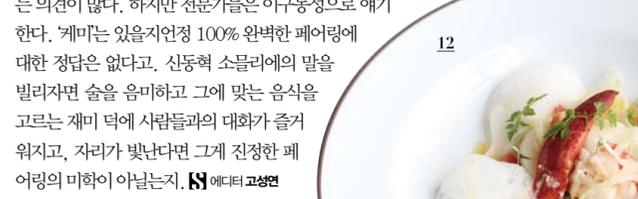
1 돔 페리뇽의 명품 P2-1998. 16년에 걸쳐 완성된 P2에서는 에너지의 절정이 빛아는 농약함이 느껴진다. 2 미슐랭 스타 셰프 임정식 셰프가 운영하는 서울 청담동 정식당의 바(bar). 각종 와인도 샴페인을 여러 용량의 글라스 단위로, 그리고 파인 다이닝 수준의 요리로 바이트(bite)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3, 4 정식당 바에서 주문 가능한 캐비아 요리와 초리조를 넣은 파에야 요리. 5 강한 탄성을 형성한 싱글 몰트위스키 맥앨런 18년과 포터하우스 안심의 '궁합 만점' 페어링. 6 한냉에서 이어 청담동에서 몰트 위스키 바 사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볼트82. 최고급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제공하는 스테이크 하우스도 있다. 7, 12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파크 하얏트 부산의 풀을 주제로 한 와인 페어링 메뉴. 라벤더 꿀을 곁들인 디저트와 오렌지꽃 꿀을 넣은 랍스터 요리. 8, 9 파크 하얏트 서울 24층 더 라운지에서 선보인 산계림 한식 강남 콤포트 퀴진과 와인 페어링. 10 헨드릭스 진, 맥주 등과 잘 어울리는 랍스터 샌드위치로 유명한 펍 레스토랑 '로코스'. 11 경리단길의 명소로 헨드릭스 진을 따는 꽃 가게 플라워 진. 전통 약방 콘셉트의 팝업 스토어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쌈과 인삼 소스를 넣어 구운 유기농 영계 요리)와 짝을 지을 만한 와인 역시 피에몬테산 화이트 와인 가비(Gavi di Gavi, Villa Sparina, 2013). 상쾌한 라인과 시트러스 향, 사과 향, 그리고 자몽의 달콤 짭사름함이 특징인 이 와인은 삼계구이의 살짝 텁텁한 면모를 잡아줄뿐더러 가끔류 특유의 텍스처와 맛을 살려주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해운대 백사장과 요트를 볼 수 있는 파크 하얏트 부산 역시 창의적인 페어링으로 미식가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그중에는 다섯 가지 코스에 저마다 다른 꿀을 가미한 프랑스 요리와 와인의 페어링을 시도한 ‘히니 와인 디너’가 눈길을 끈다. 그 시작은 푸아그라 테린에 아카시아 꿀을 얹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친도복숭아 콤포트를 곁들인 전채 요리. 여기에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향이 풍부한 와인인 2013 도메인 피에르 크로(Domaine Pierre Cros, Les Costes)를 페어링하면 절로 미소가 번진다. 달콤함과 산도가 완벽한 균형을 이뤄 평소 푸아그라를 잘 즐기지 않는 고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게 셰프의 설명이다. 아카시아 꿀을 가미한 자몽 서빙과 짭사름한 캄파리로 입을 개운하게 한 뒤 제공되는 메인 요리는 유칼립투스 꿀을 곁들인 훈제 오리 가슴살.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와인으로 미식의 품격을 올리는 재치를 발휘할 수 있다. 예컨대 첫 번째 와인은 베리류의 풍미를 더해 유칼립투스 향과 조화를 이루는 론 와인(Domaine De la Janasse, Cotes du Rhone, 2013), 두 번째 와인으로는 농밀한 과일 향에 걸맞이 크림미한 정통 호주 와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몰리두커, 더복서(Mollydooker, The Boxer) 2014를 내놓는 식이다.

스테이크의 품격을 살리는 싱글 몰트위스키, 맥앨런의 위업
위스키 시장에서 싱글 몰트만큼 ‘핫한’ 종목은 없을 것이다. 요즘 싱글 몰트위스키 애호가들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청담동 볼트82. ‘몰트 바 열풍’의 주역인 마서우 대표가 한냉동에 이어 설립한 위스키 바다. 그런데 볼트82는 흔히 위스키 바라고만 생각하지만 이곳에는 싱글 몰트와 막강 궁합을 자랑한다는 스테이크 하우스도 있다. 미국 최고의 쇠고기 발굴중장하 나인 마스터퍼베이어스(masterpurveyors.com)에서 재료를 공수하는 볼트 스테이크 하우스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싱글 몰트위스키 브랜드 맥앨런(Macallan)의 페어링은 호기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스테이크와 위스키는 각자 꽤나 강한 느낌과 맛을 풍긴다. 그래서 이들의 합을 논할 때는 아무래도 맛이 압도당하지 않도록 강약의 조화를 추구하되 갈수록 연신아 높은 위스키를 고르는 게 정석이다. 먼저 맥앨런 12년과 포터하우스 채끝의 만남. 말린 과일 향과 세리 향, 달콤한 바닐라를 다한 맥앨런 12년이 ‘뉴욕 스트립’이라고 불리는

담백한 채끝의 맛과 질감을 복돋워준다. 싱글 몰트 페어링의 시작으로 과하지 않은 상쾌한 출발이다. 이어 맥앨런 15년의 쪽으로는 랍이 스테이크가 안성맞춤이다. 과일 향과 스모크, 스파이시함이 혼합된 풍미로 담백하면서도 화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맥앨런 15년에 지방이 많은 랍이 목직함이 꽤나 잘 어울린다. 강렬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맥앨런 18년과 포터하우스 안심의 페어링을 권할 만하다. 세리 캐스크 특유의 진하고 달콤한 향과 알싸한 스파이시함을 동시에 품은 맥앨런 18년과 부드러운 안심의 조화가 그야말로 일품이다.

경리단길을 사로잡은 헨드릭스, 프리미엄 진의 ‘짙짙’ 음식은?
요즘 ‘트렌드세터’들의 집합지로 일컬어지는 이태원 경리단길에 가면 눈에 띄는 브랜드 중 하나가 헨드릭스(Hendrick's)다. 청량한 오이 맛이 특징적이고, 은근한 장미 향도 살짝 품은 프리미엄 진(gin) 브랜드로 특히 젊은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경리단길의 플라워 진(Flower Gin)은 헨드릭스를 살 수 있는 독특한 플라워 슌으로도 유명하다. 이 슌의 대표가 유화 시절 즐겨 마시던 헨드릭스를 손님들에게 권하다가 이에 판매도 같이 하면서 꽃도 팔고, 진도 파는 이색 명소를 만들게 됐다. 제미안 에피소드가 있다. 보드카, 럼과 함께 화이트 스피릿의 인기를 이끌고 있는 증류주인 진을 둘러싼 다양한 각테일 레시피가 있지만 출출한 배를 채워줄 페어링 메뉴도 점차 생겨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오징어 먹물 시림과 헨드릭스 진 칵테일 ‘블랙 레이디(Black Lady)’는 먹물 파스타와 씩 흥미로운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헨드릭스 마니아들이 가장 즐겨 찾는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진토닉이다. 오이와 얼음, 토닉워터만 있으면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진토닉과 매칭하는 메뉴를 접할 수 있는 장소로는 경리단길의 랍스터 샌드위치 가게로 유명한 로코스(Loccos)가 있다. 감자튀김과 코울슬로 등과 함께 나오는 랍스터 샌드위치는 물론 맥주와도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지만 오이 향이 상큼한 헨드릭스 기반의 진토닉과도 빼어난 파트너십을 자랑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케미는 있을지언정 100% 완벽한 페어링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신동혁 소믈리에의 말을 빌리자면 술을 음미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고르는 재미 덕에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지고, 자리가 빛나면 더 그게 진정한 페어링의 미학이 아닐는지. **서예터 고소연**



Jewel on high

반짝임으로 가득한 꿈속의 풍경, 환상적인 아름다움, 홀날리듯 네크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정교한 하이주얼리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쉐론 페가수스 브레이크아웃** 그리스 신화 속 날개 달린 말의 형상을 한 페가수스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주얼리 브레이크아웃. 예술 작품에 버금가는 독보적인 피스다.

부쉐론 세렘 보렘 엘로 골드 롱 네크리스 볼륨감이 느껴지는 트위스트 채인과 과감한 울림을 보여주는 아우라까지 관능미가 느껴지는 여성스러운 네크리스. 1천3백5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타사키 외일드 부케 레다인드 네크리스 플라티넘 소재로 수국을 표현하고, 2캐럿 다이아몬드를 센터 스톤으로 디자인한 하이주얼리 네크리스. 22.86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볼륨감과 입체감이 뛰어나다.

까르띠에 하이주얼리 아이링 파드차렘 넘살레고, 내비자렘 나폴레옹의 다양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7차원적인 공간 디자인의 아이링. 총 6.92캐럿, 4백50개에 달하는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두이하게 완성했다.

불가리아 세르펜티 네크리스 불가리아의 하이주얼리 스타 디자이너인 세르펜티 모티브를 보다 과감하게 디자인한 네크리스. 화이트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유연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독자적으로 고안한 개별 부속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착용감이 편안하다.

타사키 외일드 부케 레다인드 아이링 4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로 수국을 정교하게 표현한 하이주얼리 아이링. 신부를 위한 풍성한 부케를 연상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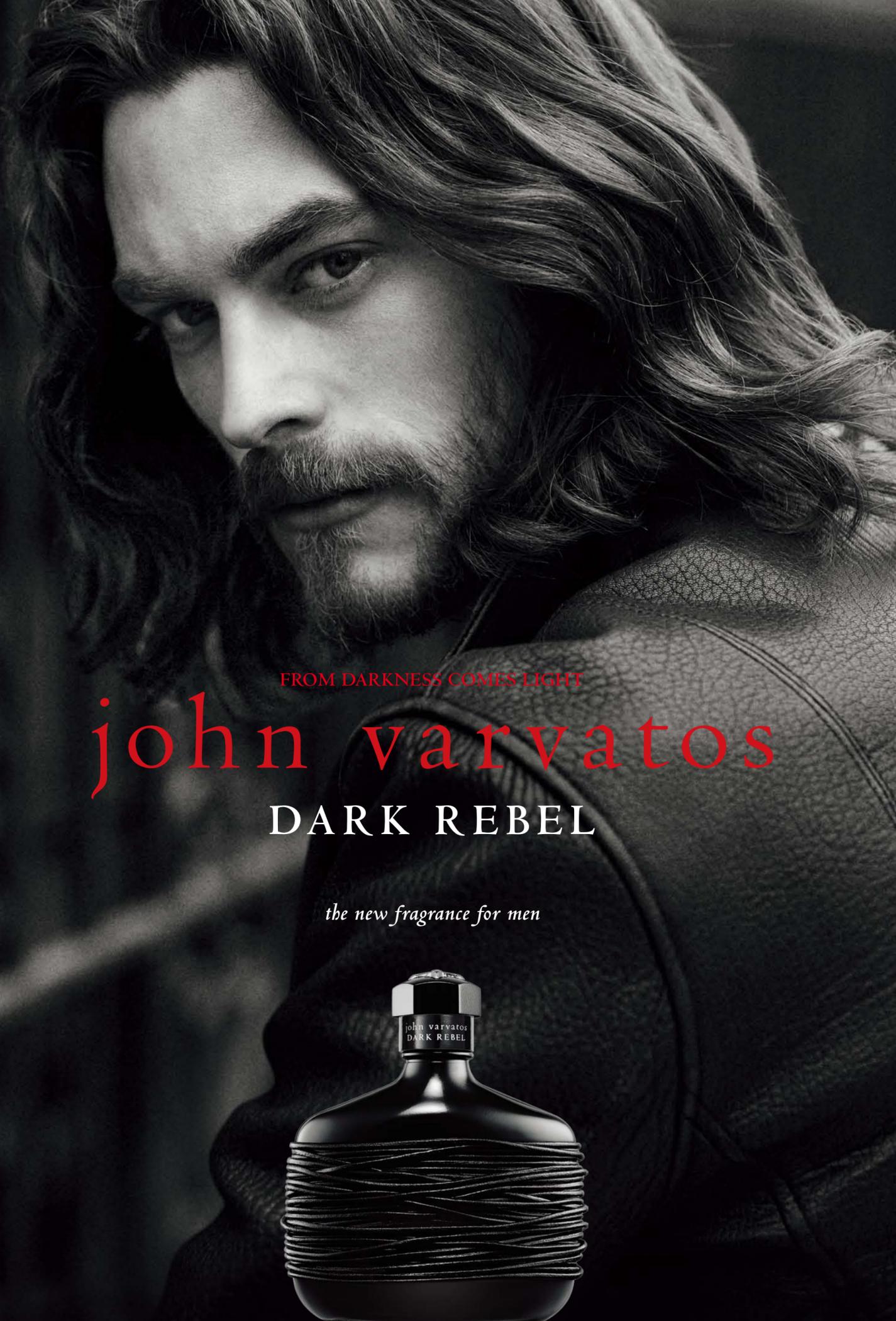
불가리아 디바 컬렉션 네크리스 창립자는 부채 모양의 모티브가 네크라인을 따라 파드차렘 호르노, 극도의 여성스러움을 담은 하이주얼리 컬렉션. 이탈리아 브렌디 특유의 대담함과 화려함이 담겨 있다. 정교하고 유기적인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까르띠에 파리 누벨라그 컬렉션 브레이크아웃 핑크 골드 반짝임은 비즈로 엮어 그 사이사이에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을 타당한 메를락인 컬렉션. 팔목 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흔들림 없는 리듬감을 선사한다. 에디션 **베르민**

까르띠에 1566-7277 부쉐론 02-3213-2246 타사키 02-3461-5558 불가리아 02-2056-0172

공식수입원 : (주)세이오인터내셔널 | www.cso.kr | 문의 : 080.363.5454

©2015 EA Fragrances Co., John Varvato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John Varvatos Apparel Corp.



FROM DARKNESS COMES LIGHT

john varvatos

DARK REBEL

the new fragrance for men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반블리드 아펠 피에르 아펠** 1949년 브랜드 창립자인 피에르 아펠이 직접 고안한 워치. 케이스와 스트랩을 있는 T자형 라그가 현대적인 매력을 더한다. 베젤의 폭을 최소화하고 심플한 다이얼 디자인으로 완성해 남성용 워치지만 스트랩 컬러와 사이즈, 소재를 달리하면 여성에게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화이트 골드 소재에 매력적인 그린 컬러 스트랩을 매치했다. 1천7백만원대. 문의 02-3440-5660

티파니 아스트 웨스트 우아함과 대담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워치. 1940년대에 출시한 아노디제드 워치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기존과 전혀 다른 각도에 다이얼을 배치했다. 42x25mm의 직사각형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 블랙 아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티파니 로고와 아이라인숫자가 클래식하다. 4백만원대. 문의 02-547-9488

에르메스 아스트 브라운 룬 1978년 탄생한 아스트 라인을 2015년 리뉴얼해 새롭게 선보인 여성용 룬메이즈 워치. 에르메스 매뉴팩처에서 생산한 H1837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10시 방향에 작고 섬세한 작은 문메이즈를 장착해 시종일관 매력을 담았다. 기존 모델과 달리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델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컬러의 스트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에르메스 워치의 매력이다. 1천만원대. 문의 02-3448-0728

몽블랑 헤리티지 크로노메트릭 울트라 슬림 워치 광장이 않고 가벼운 남성 클래식 워치로 비즈니스 룩을 연출하고 싶거나, 장식적인 디자인을 가리는 여성에게 잘 어울린다. 아이라인

아슬자과 바 인텍스만으로 구성된 심플한 숫자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다이얼에 블랙 얼리케이터 스트랩을 매치해 대담한 워치로 제격이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격도 합리적이다. 2백64만원. 문의 02-2118-6053

에거 르클레르 왕데부 데이브 피인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쌓은 브랜드인 만큼 모던함에 클래식함을 자연스럽게 더했다. 컬러가 은은한 메타오브얼 다이얼, 가죽성이 뛰어난 아이라인숫자판에 6시 방향의 날짜 표시창까지,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여성 워치.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길버버 899를 장착한 오토매틱 무브먼트에 38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까지 갖췄다. 2천2백만원대. 문의 02-3213-2236

까르띠에 산토스 듀롱 워치 루이 까르띠에의 친구인 비행사 산토스 듀롱을 위해 제작한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 핑크 골드 케이스에 초콜릿 컬러의 얼리케이터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함을 담았다. 케이스 디자인만으로도 브랜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다. 1천9백만원대. 문의 1566-7277 에디터 배미진

(시계 외 소품, 왼쪽 위 구두부터 시계 방향으로) 크리스탈 장식 블랙 하일릴 로저 비비에, 골드 스티드 장식 블랙 클러치 지미 후, 실버 클러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장식 힐 미우미우, 핑스틱 케이스가 함께 구성된 클러치 톱 포드, 블랙 사테에 크리스탈을 다한 클러치 스와로브스키.

스타일링: 유영정, 아스트 아펠



classy Time

중성적인 매력에 단정한 느낌, 취향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견고한 디자인. 시간을 표현함에 있어 가장 담백하고 매력적인 에티튜드를 담았다. 매력적인 여성의 표상, 매니시 워치. *photographed by park gun too*



리들리 스콧 필름
반드시 그를 구하라
맷 데이먼
마션
10월 3D대개봉

MUSIC BY HARRY GREGSON-WILLIAMS PRODUCED BY SIMON KINBERG RIDLEY SCOTT MICHAEL SCHAEFER ADITYA SOOD MARK HUFFAM BASED UPON THE NOVEL BY ANDY WEIR SCREENPLAY BY DREW GODDARD DIRECTED BY RIDLEY SCOTT

TheMartian.hamiltonwatch.com



BeLOWZERO
AUTOMATIC SWISS MADE

#TIMEMATTERS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dream Jacket

스타일을 즐길 줄 아는 남자라면, 다채로운 프린트와 디테일을 겸비한 재킷의 향연에 동참하라.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인강에 카무플라주 패턴을 더해 소매를 접었을 때 더욱 멋스러운 재킷 2백93만원
발렌티노 by 론.



복고적인 패턴으로 스타일링에 포인트가 되어줄 재킷. 실크 소재라 부드러운 촉감이 매력적이다. 3백42만원
구찌.



겉과 안감 모두에 화려한 패턴을 프린트한 재킷. 벨벳 소재로 부드러운 착용감을 더했다. 2백89만원
에트로.



보온성을 높인 퀼팅 라바사블 재킷. 화려한 결판과 달리 안쪽은 세련 소재 재킷으로 활용 가능해 포괄한 룩으로도 연출할 수 있다. 1백57만원
드리스 반 노트 by 분더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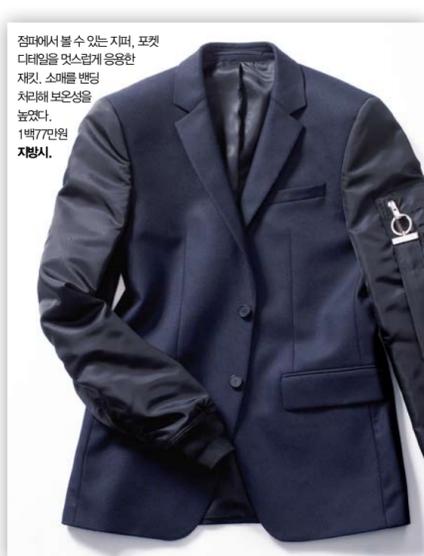
이전 시즌 트렌드인 체크 패턴과 가볍고 따뜻한 울 소재가 조화를 이룬 재킷 1백19만원
라디디니 by 란스미어.



모, 폴리, 실크 소재를 믹스한 재킷. 큐브 패턴의 프린트가 유니크한 멋을 더한다. 2백65만원
크리스토퍼 케인 by 분더샵.



인강이 따로 없어 가볍고 말의 움직임이 편한 재킷. 비즈니스맨에게 데일리 재킷으로 추천할 만큼 캐주얼함과 클래식함을 두루 갖췄다. 1백25만원
블리올리.



점퍼에서 볼 수 있는 지퍼, 포켓 디테일을 멋스럽게 응용한 재킷. 소매를 뒀던 차원해 보온성을 높였다. 1백77만원
자형시.



그레이 톤 배색이 특징인 울 재킷. 인강을 톰 브라운의 시그니처인 블루·화이트·레드 패턴으로 장식했다. 2백50만원 톰 브라운.
에디터 김자혜

스타일링: 유영정 이나아트 이사영



BEANPOLE

MYEONGDONG FLAGSHIP STORE, SEOCHO D'LIGHT, SHINSEGAE MAIN, SHINSEGAE GANGNAM, LOTTE MAIN
HYUNDAI MAIN, HYUNDAI COEX, HYUNDAI PANGYO, COEX MALL, IFC MALL, LOTTE WORLD MALL, TIME SQUARE MALL

BEANPOLE.COM FACEBOOK.COM/BEANPOLE.KR INSTAGRAM.COM/BEANPOLE_OFFICIAL

fall's it Color

이번 시즌 역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립, 아이, 네일처럼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디테일한 부분은 베이지, 브라운, 네이비같이 채도 낮은 컬러로 채워졌다. 당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물들일, 가을빛을 담은 컬러의 매력 속으로 초대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카미 향처럼 부드럽고 깊어진 아이 메이크업 이번 시즌은 베이지, 브라운, 카키처럼 낙엽을 닮은 빛바랜 컬러가 강세다. 내추럴 메이크업에 지루해하던 여성들에게 컬러의 재미를 부여한 셈. 하지만 이전의 강렬한 스모키 메이크업과는 다르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트렌드에 맞춰 아이 메이크업 역시 내추럴 스모키 메이크업을 지향했다. 라이너, 아이 틴트, 펜슬 타입 아이섀도처럼 질감이 크리미한 제품을 사용해 부드럽게 블렌딩해주는 방법으로, 이때 눈두덩이 전체에 비크기보다는 음영을 주듯 생까를 라인 정도까지 피부가 비칠 정도로 살짝 발라야 분위기가 있는 눈매를 완성할 수 있다.

자연스럽거나, 강렬하거나 아이 메이크업과 달리 립 메이크업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스모키 메이크업의 단짝 친구라 할 수 있는 nude 립스틱과 2015 FW 트렌드 컬러인 레드 립스틱이 그것. 나뭇가지 컬러를 연상케 하는 nude 립스틱은 앞서 소개한 투명한 스모키 메이크업과 완벽한 조화를 이뤄 세련된 가을 메이크업을 완성하기에 제격이다. 특히 nude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는 컨실러나 피운데이션을 사용해 입술 톤을 낮춰야 재채로 된 컬러를 연출할 수 있다. 반면 이번 시즌 레드 립스틱은 와인줄 머금은 듯 채도가 낮아지고 따뜻한 느낌으로 변신했다. 수채화처럼 물에 번진 레드가 아닌 조금 매트해진 립스틱으로 정교하게 바른 립 메이크업이 트렌드로 부상했다는 이야기. 그래도 레드 립이 부담스럽다면 입술을 짙게 바르기보다는 입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려 데이션되도록 비르면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에디터 김지혜**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엑스티시 라커 402 6ml, 4인원대 **조르자오 이르마니**, 세도 팔레트 앙드레라 6g, 8인원대 **샤넬**, 키세스 nude 베이지 3.3g, 4인원대 **버버리**, 디올 어딕트 플루이드 세도 유나베 6ml, 4인원대 **디올**, 아이 컬러 크림 링크 3.6g, 4인원대 **바버리**, 루주뷰르 꾸뛰르 3.8g, 4인원대 **입성로랑**, 꾸뛰르 바리아시옹 6.5g, 10인원대 **입성로랑**, 루주 알튀르 벨빌 51 3.5g, 4인원대 **샤넬**, 아이 틴트 앵버 브라운 6.5ml, 5인원대 **조르자오 이르마니**, 5 컬러 코스모폴리트 팔레트 766 6g, 8인원대 **디올**, 퓨어 컬러 앤비 스텝프링 립스틱 디파이언트 코랄 3.5g, 3인원대 **에스티 로더**, 루즈 언리미티드 크리미티드 모던 레드 3.4g, 3인원대 **슈에무라**, 아티스트 글 플렉시 406 7ml, 3인원대 **메이크업 포에버**, 워터 아이 트와스트 카키 1.5g, 4인원대, 워터 캐트르 올브르 드링글미스타리 3.4g, 9인원대 **모두 시슬리**, 립 컬러 번트 레드 3.4g, 3인원대 **비비 브라운**, 꾸뛰르 카탈 11.5g, 4인원대 **입성로랑**, 아데시스 립스틱 줄이엔 4.2g, 3인원대 **나스**, 올브르 플렉트르 까드리 311 5g, 6인원대 **클레르보 보네**, 네일 에-퀼 컬러 483호 10ml, 2인원대 **헤라**, 퓨어 컬러 앤비 아이 디파이닝 싱글즈 브라운 브론즈 1.8g, 3인원대 **에스티 로더**, 벨블루피이 스파클링 오프 5ml, 3인원대 **맥**, 워터 립 트와스트 체스트넛 2.5g, 4인원대 **시슬리**, 스모키 파우더 세도우 스틱 솔로우 번 1.2g, 2인원대 **에스티 로더**, 립스틱 VIP 레드 3.4g, 3인원대 **나스**, 라라고 꾸뛰르 201 10ml, 3인원대 **입성로랑**, 마니큐어리즈 라지 립스틱 레어 브리드 3.6g, 3인원대, 벨룩스 필립전 세도 콜렉티브 칩 2g, 3인원대 **모두 맥**.

맥 02-3440-2782 **나스** 02-6905-3747 **입성로랑** 080-347-0089 **클레르보 보네** 080-564-7700 **에스티 로더** 02-3440-2772 **시슬리** 080-549-0216 **헤라** 080-023-5454 **비비 브라운** 02-3440-2781 **메이크업 포에버** 080-514-8942 **조르자오 이르마니** 080-022-3332 **버버리** 02-3485-6583 **샤넬** 080-332-2700 **디올** 080-342-9500 **슈에무라** 080-022-3332

the skin caviar collection



an invincibility to time

스킨 캐비아 콜렉션의 경이로운 리프팅과 퍼밍 효과를 만나보세요. 새로운 피부 톤과 향상된 피부 탄력을 당신에게 선사합니다.

Legendary

현대백화점 입구정분점 3438-6077 무역센터점 501-4420 목동점 2163-1152 천호점 2225-7156 판교점 031-5170-2120 부산점 051-644-9787 대구점 053-245-2135 울산점 052-228-0160 롯데백화점 본점 772-3130 잠실점 2143-7187 강남점 531-2156 분당점 031-738-2167 대구점 053-660-3007 부산본점 051-810-3108 광주점 062-221-1151 신세계백화점 본점 310-5068 강남점 3479-1291 경기점 031-695-1667 센텀시티 051-745-2279 갤러리아백화점 명동관 WEST 516-8881 타임월드점 042-720-6141 AK PLAZA 분당점 031-709-9742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253-6949

la prairie
SWITZERLAND

수업원 : 라프레리프라이유
고객상담실 080-511-6626 / www.laprairie.com

Shoes addiction

이번 시즌 어떤 슈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주목하라. 타임리스 아이템인 클래식 슈즈부터 이미 패션 피플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 된 따끈한 신상 슈즈까지.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2015 F/W 슈즈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Color Control

(왼쪽부터) 파퓌, 그린, 오렌지의 화려한 컬러 조합이 멋스러운 스웨이드 웨지힐 1백만원 **피에르 아르디**. 부드러운 광택과 컬러가 고급스러운 새틴 컬러 블랙 슈즈 1백만원대 **에르메스**. 베이지, 핑크 컬러의 로맨틱한 메리제인 슈즈 90만원대 **프라다**.

Black Dress up

(왼쪽부터) 대롱대롱 매달린 링크 힐 장식이 시원스러운 부츠 1백90만원 **구찌**. 뒷굽의 프란지 디테일이 경쾌한 앵글부츠 2백만원대 **버버리**. 투명한 굽이 유니크한 송아지가죽 소재의 부티 1백53만원 **켄디**. 매끈한 라인이 돋보이는 페이퍼트 부츠 2백20만원 **디올**.

Classy Chic

(왼쪽부터) 하운즈투스 체크 프린트가 포인트로 들어간 스웨이드 힐 96만2천원 **발프 로렌 컬렉션**. 링크 버클 장식이 페이퍼트 힐 68만원 **발리**. 앙코의 스퀘어 장식이 눈길을 끄는 레이디 스퀘어 구두 1백만원대 **루이 비통**. 베이지 스웨이드와 블랙 가죽 트리밍이 단아한 느낌을 주는 슈즈 85만원 **휴고 보스**.

스타일링: 유영정 어시스턴트: 이서영

WHAT ARE YOU
LOOKING FOR?

호텔을 선택할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준 높은 아트 컬렉션
고품격 다이닝
매혹적인 스파 서비스...
파리, 홍콩, 발리 그리고 몰디브에
진정한 럭셔리 가치를 선사한
포시즌스에서 당신은
매 순간 특별해집니다.

전 세계 95개 지점의 명성과 함께
최상의 감동으로 서울에 찾아옵니다.

FOUR SEASONS HOTEL
Seoul

Timeless Classic

(왼쪽부터) 차분한 브라운 컬러의 더블 몽크 스트랩 슈즈 75만원 **로투메 by 란스미어**, 클래식한 디자인의 블랙 로퍼 70만원 **토즈**, 견고한 소가죽으로 제작한 레이스업 슈즈 1백15만원 **에르메네집도 제나**.



Luxe Sportism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모노그램 패턴을 다한 모션 스니커즈 1백10만원 **루이 비통**, 레드·블랙·화이트 컬러의 조화와 화려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하이톱 슈즈 97만원 **피에르 아르디**, 볼드한 골드 스타드 장식이 시선을 사로잡는 블랙 하이톱 슈즈 1백만원대 **에르메스**, 레오파드 패턴이 포인트인 송지소재 스니커즈 1백19만원 **랑방 울므**.



Trendy Power

(왼쪽부터) 정가루 피로 트리밍한 울스킷 로퍼 슬리퍼 97만원 **구찌**, 스포티한 느낌의 라바솔이 눈에 띄는 데비 슈즈 1백20만원 **디올**, 캐주얼 & 블랙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투톤 라바솔 슈즈 1백10만원 **프라다**, 에디터 **김지혜**



AN EXPERIENCE
AS YET UNKNOWN

상상해 보셨나요?

세계 최고 수준의 피트니스,
도심 속의 힐링을 위한 사우나,
아늑한 휴식을 위한 라운지까지...

이 모든 상상이 다이나믹한 도시,
서울의 중심에서 현실이 됩니다.



FOUR SEASONS CLUB
Seoul

Divine Sparkle

“사람의 말보다는 말 못하는 보석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명언처럼, 그라프(Graff)의 보석은 지금, 전 세계 여심을 뒤흔들고 있다. 그 뒤에는 다이아몬드 디자인과 유통뿐 아니라 채굴과 도매, 중개에 대한 투자까지 아우르는 ‘다이아몬드의 제왕’, 창립자 로렌스 그라프가 존재한다.

그라프의 심장, 주얼리 공방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그라프(Graff)는 크고 귀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유한 브랜드로 유명하다. 진귀한 다이아몬드는 반드시 마스터 로렌스 그라프의 손을 거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설립자 로렌스 그라프는 주얼리업계에서 다이아몬드의 제왕으로 통한다. 2년 전, 신라호텔이 리뉴얼 오픈할 당시 이례적으로 1층에 자리를 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을 터, 영국 최상급 주얼리 & 시계 브랜드 그라프는 역민장자인 로렌스 그라프가 1960년대에 설립한 이후 현재 전 세계 5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세계 최고 부호로 꼽히는 이들이 단골 고객임은 당연지사, 브루나이 왕가와 사우디 왕가를 비롯해,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의 왕비 시를린 위트스톡도 공식석상에서 그라프 제품을 자주 착용했고, 도널드 트럼프, 오프라 윈프리, 래리 앨리슨 역시 그의 단골이다. 매장은 몬테카를로에서 두바이, 모스크바까지 전 세계에서 명품이 가장 비싸다는 장소에 들어서 있다. 원석 선별부터 디자인, 세팅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 큰 주얼리 공방 중 하나인 그라프의 런던 공방에서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그곳에서는 그라프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한 명장을 포함해 1백 명이 넘는 장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 덕에 매달 1백 개 이상의 주얼리 작품이 장인들의 손끝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 게다가 로렌스 회장은 원석의 확보부터 디자인까지 주얼리의 전 제작 과정을 직접 감독함으로써 그 어떤 살수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을 추구한다. 완성적인 주얼리 피스를 제작하는 데에는 수백 시간에서부터 수개월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 컬러와 컬러티가 최고 수준인 다이아몬드를 사이즈와 모양에 따라 일일이 손으로 선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분류하고 등급을 매기는 일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반드시 사람의 눈과 판단력으로 결정해야만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외 없이 언제나 완벽을 추구



하는 것, 이것이 지금의 그라프를 만든 고집스럽고도 가장 강력한 철학일 것이다. 1차로 선별한 원석은 푸른색의 특수 조명을 비쳤을 때 형광빛을 띠는지 확인한 뒤, 형광빛이 나는 제품은 철저하게 제외시킨다. 이 같은 2차 추가 분류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곧바로 주얼리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조화, 좌우대칭이 완벽한 원석을 갖출 때까지 7달의 시간을 갖는다. 때로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지만, 기술이나 인력이 갖춰졌다고 해도 최상의 원석이 모두 준비되기 전까지는 선별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같은 기약 없는 기다림마저도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길임을 잘 알기에 공방의 장인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라프 공방에는 여섯 종류의 작업실이 있다. 그곳 장인들은 자신만의 도구를 사용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유익해진 자신의 작업 방식과 손놀림에 꼭 맞춘 도구는 다른 장인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망치, 톱, 금속 줄 등 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 최첨단 기계와 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다 섬세한 디테일을 완성할 때 사용한다. 원석의 결채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폴리싱을 거듭하는 과정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검수된 것이 확인된 뒤에야 완성된 제품을 전 세계에 포진한 50개 매장으로 보낸다. 공방이 이탈리아 브랜드의 심장이자 핵심 DNA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로렌스 그라프 회장은 공방의 모든 장인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견습생 프로그램도 도입해 브랜드의 장인 정신 전통을 계승하는 데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1차로 선별한 원석은 푸른색의 특수 조명을 비쳤을 때 형광빛을 띠는지 확인한 뒤, 형광빛이 나는 제품은 철저하게 제외시킨다. 이 같은 2차 추가 분류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곧바로 주얼리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조화, 좌우대칭이 완벽한 원석을 갖출 때까지 7달의 시간을 갖는다. 때로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지만, 기술이나 인력이 갖춰졌다고 해도 최상의 원석이 모두 준비되기 전까지는 선별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같은 기약 없는 기다림마저도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길임을 잘 알기에 공방의 장인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라프 공방에는 여섯 종류의 작업실이 있다. 그곳 장인들은 자신만의 도구를 사용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유익해진 자신의 작업 방식과 손놀림에 꼭 맞춘 도구는 다른 장인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망치, 톱, 금속 줄 등 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 최첨단 기계와 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다 섬세한 디테일을 완성할 때 사용한다. 원석의 결채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폴리싱을 거듭하는 과정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검수된 것이 확인된 뒤에야 완성된 제품을 전 세계에 포진한 50개 매장으로 보낸다. 공방이 이탈리아 브랜드의 심장이자 핵심 DNA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로렌스 그라프 회장은 공방의 모든 장인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견습생 프로그램도 도입해 브랜드의 장인 정신 전통을 계승하는 데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브랜드의 자부심, 버터플라이 컬렉션

로렌스 그라프가 지난 50여 년간 거친 인생 여정은 고쳐를 깨고 나와 화려한 날개를 펼쳐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나비와 닮았다. 다이아몬드만큼 그의 삶도 처음부터 반짝였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 14세가 되던 해 가난을 못 이긴 그는 학교 대신 알타르에 머물렀고, 15세에 보석상의 견습생으로 시작, 온갖 어려움을 겪은 끝에 독립해 작은 보석상을 차리게 된 것은 24세 때였다. 오랜 인고의 세월 끝에 자신의 보석상을 결국 세계 최고의 럭셔리 주얼리 회사로 등극시킨 그의 개척 정신은 일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 성충이 되기까지 나비의 탈바꿈과 자연스럽게 오버랩된다. 그래서일까, 나비를 모티브로 한 그라프의 버터플라이 컬렉션은 그라프의 전통과 장인 정신을 대변하는 동시에 그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컬렉션이기도 하다. 완벽한 대칭과 균형의 미가 일품인 그라프 클래식 버터플라이 컬렉션은, 최상의 보석을 보집하면서도 정교하게 배열해 나비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유려한 모습을 연상시킨다. 특히 핑크·옐로·화이트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보석을 활용해 다채로운 색을 입은 파베 버터플라이 컬렉션은 춤추듯 날아다니는 나비의 우아함과 활기찬 에너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 또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스위스 세계 제작 기술과 비범한 주얼리 디자인의 완벽한 결합으로 탄생한 버터플라이 워치는 나비의 신비롭고 놀라운 변형의 순간을 보다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로렌스 그라프 화장이 구축한 진정한 럭셔리의 비전과 개척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희소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탁월함을 동시에 갖췄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찬하지만 소수만이 소유할 수 있는 버터플라이 컬렉션. 진정한 럭셔리의 정수를 알아보는, 최고의 인목을 지닌 고객들을 위해 오늘도 화려하게 빛난다. 문의 02-2256-6810 에디터 배미진

1 이상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한 '버터플라이' 컬렉션 네트리스. 2 옐로 다이아몬드에 옐로 골드, 핑크 다이아몬드에 핑크 골드를 매치한 버터플라이 컬렉션 반지. 3 그라프는 오직 최고의 다이아몬드만을 선별해 정교하게 세팅한다. 4 볼드한 원석과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화려함을 더한 '플러밍고 에메랄드 & 다이아몬드 네트리스'. 5 옐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 세팅만으로 하이 주얼리의 가치를 극대화한 우아한 멀티 세이프 네트리스.



두 개의 골프장을 오롯이 담아내다

바람이 찾아 드는 언덕의 곡선을 그대로 이어 올려 앞으로는 용평G.C., 뒤로는 버치힐G.C.의 조망이 가능한 곳 대관령의 깨끗한 바람과 자작나무가 전하는 맑디 맑은 산소 테라피까지 용평리조트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곳 Birch Hill Terrace Residence입니다

극히 소수의 선택되신 분들을 모십니다.
Birch Hill Terrace Residence

회원모집문의 02.3270.1137



Birch Hill Terrace Residence 80Type 현장에서 실제 촬영 한 용평G.C.전경입니다



Simple is an art

기대할 만한 명성,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까르띠에. 이 특별한 브랜드가 시그니처 워치인 정사각형의 산토스(Santos), 직사각형의 탱크(Tank)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위치를 선보인다. 바로 아름다운 라인으로 완성한 끌레 드 까르띠에(Clé de Cartier). 워치메이커로서 진지한 자세를 이어나가는 까르띠에의 고귀한 가치를 담은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윗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케이스와 다이얼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까르띠에의 시그니처가 된 핑크 옐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한 매력을 담은 **끌레 드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 6시 방향의 날짜창을 확인할 수 있다. 케이스 사이즈가 35mm로 볼드한 매력도 느낄 수 있다. 매력적인 버건디 컬러의 옐리게이터 스트랩과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케이스로 귀족적인 매력을 완성한 **끌레 드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 블루 사파이어를 세팅한 크라운과의 컬러 대비가 매력적이다. 1847MC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다이아몬드 기둥을 흡수한 듯 다이얼부터 케이스, 밴드까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빼곡하게 세팅한 **끌레 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워치**. 하이 주얼리 브랜드로서 까르띠에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모델로,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음에도 실크처럼 매끄럽다.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심플하고 유려한 매력을 단숨에 담아 낸 화이트 골드 소재의 **끌레 드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 베젤에 세팅한 다이아몬드의 반짝임과 저 은은하게 느껴진다. 케이스 직경은 35mm이며,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1566-7277 에디터 **배미진**



시대를 초월하는 상징적인 타임피스 라인, 끌레 드 까르띠에

1백60년을 이어가는 까르띠에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끌레 드 까르띠에. 시계에 정통한 브랜드에서 새로운 아이콘이 위치를 선보인다는 것은 신중함이 뒤따르는 일이다. 지금까지 브랜드를 대표하는 산토스, 원형 일색인 워치 시장에 아직까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사각형의 탱크, 우주의 신비를 품은 작은 조약돌에서 모티브를 얻어 예술 시장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 발롱 블루까지, 까르띠에의 시계 컬렉션은 매년 성공적이었다. 이렇듯 다양한 종류의 베스트셀러를 보유한 까르띠에에서 올해 드라마틱하게 선보인 워치가 바로 끌레 드 까르띠에. 완벽한 원형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 결과 절묘한 제품이 탄생했다. 정밀성과 균형미, 비례의 법칙에 따른 순수한 라인이 탄생한 것. 특히 인상적인 것은 크라운 디자인. 프랑스어로 열쇠를 뜻하는 'clé'라는 이름처럼, 이 새로운 위치의 크라운 형태는 열쇠를 닮았다. 시간과 날짜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 고안한 크라운은 고전적인 벽시계와 탁상시계를 조작하던 방법을 떠올리면 유사하다. 일반적인 크라운보다 크고, 가볍게 빛나는 블루 사파이어가 미장센으로 적용해 기쁨을 더한다. 끌레 드 까르띠에의 가치는 여성 컬렉션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데, 흐르는 듯한 둥근 형태에 다이아몬드의 반짝임,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을 더해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예고케 한다. 문의 1566-7277

(위부터 아래로) 스틸과 핑크 골드를 매치한 대중적인 디자인의 **끌레 드 까르띠에 핑크 골드 & 스틸 워치**. 31mm 다이얼로 실용적이고 여성스럽다. 워딩을 위한 카를 워치로도 제작하다. 까르띠에의 새로운 인허우스 무브먼트 1847MC를 장착해 소성 기구가 높은 **끌레 드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 까르띠에의 슬립 연도를 불일 만큼 완성도 높은 무브먼트를 제네바 웨이브(Vagues de Genève)로 미우라했다. 다이얼 사이즈 35mm로 존 재감이 드러나는 디자인이다. 핑크 스트랩이 돋보이는 다이얼 사이즈 31mm의 **끌레 드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 케이스의 곡선미를 아름답게 표현한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특유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2015 F/W 7 Key trends

for her

이번 시즌 여성 패션 트렌드의 가장 큰 핵심은 평범함에서 벗어나 화려할수록 빛을 더하는 맥시멀리즘이다. 러플, 지수처럼 장식적인 요소가 눈에 띄는 빅토리안 룩부터 드라마틱하게 반짝이는 메탈릭 룩의 향연까지. 이제 대체롭고 중요워진 2015 F/W 트렌드를 맞아볼 차례.

Trend 1. GENDERLESS SUIT 지난 시즌 허리선을 살린 재킷, 타이탄 팬츠, 가터 스타레토 힐과 스카프를 여성스러운 스타일링을 보여준 디올의 룩이 여성 슈트의 모범 답안이었던, 이번 시즌에는 지극히 중성적인 무드의 젠더리스 스타일이 강세다. 젠더리스 룩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다면 구찌의 스타일링을 눈여겨보자. 살짝 들어간 허리선이 특징인 재킷과 와이드 팬츠, 이너로 매치한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는 남성 컬렉션과 생동감처럼 동일한 것은 물론, 스타일리시한 젠더리스 룩을 완벽하게 더할 나위 없다.

Trend 2. GOOD NIGHT WEAR 가느다란 끈으로만 이뤄진 슬립 드레스가 지난 S/S 시즌에도 런웨이를 점령하던 이번 시즌 더욱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자분해 화이트, 블랙처럼 모던한 컬러의 슬립 드레스가 사랑받았지만, 울거름은 컬러 블로킹 패턴과 더욱 다양한 라인이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 특히 여성들이 사랑하지 않는 셀린느 네이비, 오렌지, 크림처럼 대비되는 컬러로 이뤄진 슬립 드레스를, 파키모는 겨울때마다 팔려있는 패치워크 스타일의 슬립 드레스를 선보여 슬립 드레스가 더 이상 이브닝 웨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여전히 언더웨어처럼 보이지 않을까 시도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슬립 드레스 안에 티셔츠를 매치하면 좀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햇빛하게 다린 셔츠를 레이어드하면 숙운 느낌을 달아낸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Trend 3. CANDY SHOP 지난 시즌 따뜻하고 미니멀한 뉴트럴 컬러의 강세에 힘입어서일까, 겨울이면 블랙으로 도배되던 런웨이가 핑크빛으로 물들었다. 이번 시즌 레오텔에 이어 키 칼라로 선보인 핑크는 우리가 알고 있던 우아하고 뻥뻥한 칼라가 아니다. 톤 다운된 인디언 핑크부터 은은한 베이지 핑크, 청순한 페일 핑크까지, 대체로운 컬러만큼이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8부 길이 팬츠에 더할 나위 없이 경쾌한 룩을 선보인 프라다, 스웨이드 오버올에 실크 블라우스를 매치한 끌로에, 자수 장식 원피스로 우아한 핑크 룩을 선보인 톨레멘가버니까지, 혹 핑크 의상이 부담스럽다면, 슈츠와 백팩형 액세서리를 적극 활용할 것. 특히 이번 시즌 가장 효과적인 액세서리인 브로치라면 더욱 좋다. 입는 이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로 변신 가능한 핑크 룩에 정답은 없으니까.

Trend 4. LUXE BOHEMIAN 사랑과 평화, 자유를 떠올리게 하는 보헤미안 룩은 페스타블 룩으로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이번 시즌 디자이너들은 보헤미안 무드가 가득한 1970년대로 추억 여행을 떠났다. 하늘거리는 프린트 디테일의 민츠, 화려한 프린트를 다한 집시풍 드레스가 그 예. 대표적으로 버버리 컬렉션에서 보헤미안 룩을 대거 선보였는데, 특히 바람에 로맨틱하게 날리는 드레스는 재킷을 걸쳐 입으면 일상에서도 더욱 멋스럽게 소화할 수 있을 것. 자카르, 벨벳, 시린, 실크 등 여러 소재를 패치워크한 재킷이 눈에 띄는 에트로 역시 럭셔리한 보헤미안 룩의 정석을 보여줬다.

Trend 5. DARK VICTORIAN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미니멀 룩이 지배하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 여성들의 옷차림에서 영감을 받은 빅토리안 룩이 트렌드로 등극했다. 로맨틱하고 장식성이 짙은 이전의 빅토리안 룩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미스터리하고 어두운 고스(goth) 스타일이 첨가되었다는 것. 십자가 자수를 새긴 벨벳 드레스부터 코르셋과 매치한 재킷, 러플 드레스, 하이넥 블라우스는 음산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완성해 마치 빅토리아 시대의 초상화 속 여인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빅토리안 룩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무릎 위 기장의 원피스와 앵클부츠로 우아한 스타일링을 보여준 빌렌티노의 룩을 참고할 것.

Trend 6. BILLOW PADDING 몽클레어부터 파라점프스, 무스너클까지, 지난해 겨울은 프리미엄 패딩의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셔너블한 디자인 보온성이 뛰어나 필수 아이템이 된 패딩이 이번 시즌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듯 과감한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안 그래도 부해 보이는 디자인을 더 부풀렸다고'라고 의아해할 수 있다. 하지만 허리에 타이탄한 미니스커트를 매치한 펜디의 룩을 참고한다면 슬림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다. 좀 더 새로운 스타일의 패딩을 선호하는 이들이라면 단추를 이용해 소매를 탈착할 수 있는 셀린느의 패딩을 놓치지 말도록.

Trend 7. THE SHINING 일상적인 패션의 상징인 농코어 룩에 싫증 난 이들이 반길 만한 트렌드가 찾아왔다. 시선을 유도하며 반짝이는 메탈릭 아이템이 그것. 기존보다 세련된 반짝임으로 '드레스업'해 다시금 돌아온 글리터 룩,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실버 시린 니트에 메탈릭한 미니스커트를 매치해 세련한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루이 비통과 알루마늄 금속사의 일종인 루렉스 소재의 플리츠스커트를 빈티지하면서 소녀스러운 무드를 연출한 의상은 다가오는 연말 파티 룩으로 제격이다. 화려할수록 이번 시즌 트렌드에 가까워진 카디안 네크리스와 아이아를 적극 활용하자. 에디터 김지혜



Candy Shop_PRADA

Luxe Bohemian_BURBERRY PRORSUM

Dark Victorian_VALENTINO

The Shining_LOUIS VUITTON

Genderless Suit_GUCCI

Good Night Wear_SALVATORE FERRAGAMO

Oversize Vibe_DIOR HOMME

Bilow Padding_FENDI

Layer-up_Knits_JIL SANDER

Searing with Everything_FENBI

for him

컬러, 실루엣, 소재, 패턴 등으로 나눠 이번 시즌 남성 스타일에 방향점을 짚어줄 일곱 가지 트렌드를 2015 F/W 맨즈 컬렉션에서 골랐다.

Trend 1. COLD GREY 이번 시즌 남성 컬렉션의 중심에 선 컬러는 바로 그레이다. 프리다, 브리오니, 펜디, 보테가 베네타,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 다수의 브랜드들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레이 컬러로 단정한 슈트 룩을 캣워크 위에서 선보이며 그레이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으니 다크한 톤부터 라이트한 톤까지, 따뜻한 보이는 색상부터 차가워 보이는 색상까지 다양한 그레이 컬러가 무대 위에 올랐지만 그중에서도 블루 톤이 도는 차가운 느낌의 색감에 주목해야 한다. 런던의 화색빛 가을 하늘을 연상케 하는, 세계적인 컬러 연구소 팬톤(Pantone)이 '스톰리 웨더(Stormy Weather)'색이라고 칭한 골드 그레이 컬러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제격이기 때문. 지금, 당신의 옷장 인을 체크해보라. 만약 블랙이나 네이비 슈트 일색이라면 이번엔 그레이 슈트를 마련할 최적의 타이밍이 될 것이다.

Trend 2. OVERSIZE VIBE 롱코프 비합과 함께 자신의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크게 입은 듯한 1980년대 박시 스타일이 돌아왔다. 부드러운 어깨 라인을 타고 내려오다가 어깨 아래부터 소매가 시작되는 오버사이즈 아우터웨어는 날 선 칼처럼 정확하게 재단한 아우터보다 한결 부드럽고 여유로운 인상을 심어준다. 박시한 상의에 슬림한 팬츠를 매치하면 오랜 시간 공들인 역삼각형 체형으로 연출해준 은근하게 남성성을 뽐내기에도 그만이다. 싱글브래스트 혹은 더블브래스트 포일 코트부터 데일리 룩이나 스노츠를 위한 워크 웨어 재킷, 공공 비행사들이 입는 아우터에서 착안한 보머 재킷이 이르기까지 스타일도 다양하다. 특히 다양한 길이와 소재로 선보이는 피코트의 향연은 오버사이즈 스타일 가운데 가장 눈여겨봐야 할 아이템이다.

Trend 3. BOLD PLAID SUIT 나부터 플리워 패턴까지 수많은 패턴이 캣워크를 가로질렀지만 왕좌의 주인공은 바로 스카어 패턴. 볼드한 컬러 블록으로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발산하기도 하고, 진지한 체크무늬가 만들어내는 작은 스카어로 멋진 룩에 경쾌함을 불어넣기도 하는 등 아우터웨어, 셔츠, 팬츠, 재킷 등 어떤 패션 아이템에나 쉽게 사각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상·하의를 모두 같은 패턴으로 매치하는, 한 벌의 슈트로 연출하는 스타일링법이 두드러진다. 사각 패턴에 속한 컬러 중 하나를 골라 같은 색의 티셔츠나 폴로 셔츠를 입으면 남부럽지 않은 비즈니스 캐주얼 룩으로 마무리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Trend 4. WARM MATERIAL 다소 올드하다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벨벳과 코듀로이의 변신은 그저 놀랍기만 하다. 벨벳과 코듀로이 소재의 슈트를 대거 선보이며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번 슈트의 본보기를 보여준 에르메네제일도 제나 꾸꾸로, 마치 금자루를 뿌린 듯 매력적인 광택의 벨벳 슈트로 단단한 이브닝 룩을 제안한 것으로도 모자라 코듀로이 소재를 매치한 싱글브래스트 벨벳 패치워크 백 등의 액세서리를 대거 선보인 에트로가 돋보였다. 펜디의 코듀로이 팬츠와 니트 웨어의 조우, 버버리 프로섬의 슬림한 코듀로이 트렌치코트, 보테가 베네타의 얇고 가벼운 코듀로이 피코트와 트레이닝 웨어의 매치 등은 데일리 룩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며 소재의 매력을 배가시켰음은 물론이다. 엘레강스한 느낌을 내면서도 가장 관능적인 소재인 벨벳, 보온성과 더불어 트렌디한 스타일로 거듭난 코듀로이, 그 어떤 쪽을 선택한다 해도 당신을 가장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변신시켜줄 것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Trend 5. SHEARING WITH EVERYTHING 사실 시어링(양털은 고깃집인 남성복 소재다. 여성들이 즐기는 화려한 각종 모피가 부담스러웠던 남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어링과 친밀감을 쌓아왔던 것. 그리고 이번 시즌 1970년대 분위기로 회귀한 트렌드와 함께 시어링 소재가 귀환을 알렸다. 물론 양털의 등장 자체가 그치지 않을 수도 없다. 다만 놀라운 것은 매치 방법과 활용도다. 단지 코트의 라이닝뿐만 아니라 에르메스의 운동화, 루이 비통의 가방 등 각종 카테고리의 아이템으로 거의 모든 쇼어 등장하며 한층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곱슬곱슬한 양털의 특성을 살린 것부터 벨벳처럼 짧게 깎은 텍스처까지, 자연스러운 양모 컬러 그대로인 것부터 영색한 컬러 혹은 패치워크 스타일까지, 전체 또는 부분적인 디테일로 활용한 시어링은 가족을 벗기지 않고 탈만 깎아 만든 유일한 모피나비만큼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껏 즐겨도 좋다.

Trend 6. OLIVE GREEN 그레이가 컬렉션 전반에서 카디안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동안, 그린 컬러는 오렌지, 핑크, 블루 등과의 차별한 경쟁 끝에 이번 시즌 세컨드 컬러로 입지를 굳혔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다른 컬러들보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린색은 런던, 밀라노, 파리 할 것 없이 모든 컬렉션에서 등장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색감은 마른 허브 잎이나 올리브에 가까운 컬러가 주를 이루었는데, 사실 남성들은 군대를 연상시키는 이 국방색에 손사래를 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디자이너들이 풀어낸 다양한 방식을 체크한다면 그 생각이 분명 달라질 것이다. 벨루티, 던힐, 보테가 베네타는 간결하게 딱 떨어지는 한 벌의 근사한 슈트로 시선을 집중시키는가 하면, 토즈는 실용적이고 멋스러운 캐주얼 룩으로 주말 여행을 부추겼고, 버버리 프로섬은 트렌치코트와 팬츠, 트렌디한 보머 재킷과 스웨터 등으로 그린의 변주를 뽐냈다.

Trend 7. LAYER-UP, KNITS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스타일링 노하우가 레이어링이지만 그 방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 패인이 굵은 천카니트를 활용하는 것이 이번 시즌 레이어링의 키워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트렌디한 물결에 동참했다면 질 센디나 발리처럼 메리노 울 터블렉에 투자하고 그보다 두툼한 니트 아래 받쳐 입을 것. 시크하면서도 스마트한 감성을 자아내는 데 최적의 아이템이 되어줄 것이다. 슬림한 니트 카디건을 활용하는 것 또한 단조로운 룩에서 벗어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에트로처럼 셔츠 위에 아우터로 입어 포근함을 느낄 정도로 드러내도 좋고, 실버트레 패치워크처럼 가죽 재킷 안에 레이어드해 자유분방함을 뽐내도 좋다. 겹쳐 위에 또 겹쳐 입을 방식이 아색하지 않은 요즘, 레이어드 룩에 정해진 룩이 없으니 에디터 권유진



Bold Plaid Suit_SALVATORE FERRAGAMO

Cold Grey_PRADA

Warm Material_ERMENEZIO ZEGNA

Olive Green_BURBERRY PRORSUM

(왼쪽) 헤링본 그레이 재킷, 카키 컬러 스웨트셔츠, 블루 팬츠 모두 보테가 베네타.
(오른쪽) 헤링본 버건디 재킷, 오렌지 스웨트셔츠, 팬츠 모두 보테가 베네타.



Be Cool

요즘 가장 트렌디한 룩을 차려입은 남자들의 우아하고 화려한 포트레이트. *photographed by zo sun hi*

(왼쪽) 그레이 롱 코트 **칼뱅**, 그레이 조거 팬츠 **할프 로렌**, (가운데) 블랙 더블코트, 블랙 롱, 그레이 조거 팬츠 모두 **할프 로렌**, (오른쪽) 새 패턴의 그레이 재킷, 그레이 조거 팬츠 모두 **피라미노**.



(왼쪽부터 첫 번째) 카키 브라운 트랜치코트, 브라운 롱, 지퍼 장식 블랙 팬츠, 하이웨이 스니커즈 모두 **에르메스**. (두 번째) 체크 패턴 블루 재킷, 블랙 터틀넥, 바건디 팬츠, 블루 슈즈 모두 **에르메스**. (세 번째) 네이비 더블브레스트 코트, 그래픽 패턴 바건디 롱, 바건디 라인 디테일의 네이비 팬츠, 블랙 레이스업 슈즈 모두 **에르메스**. (네 번째) 그레이 더블브레스트 코트, 바건디 잠업 후드, 바건디 팬츠, 브라운 앵글부츠 모두 **에르메스**. (다섯 번째) 파스텔 블루 가죽 재킷, 베이지 니트 롱, 브라운 팬츠, 블랙 슈즈 모두 **에르메스**.



(왼쪽) 핑크 컬러 체크 재킷과 팬츠, 그래픽 패턴 니트, 핑크 블랙 슈즈 모두 **발렌티노**. (가운데) 파스텔 블루 반소매 롱, 그레이 체크 셔츠, 브라운 팬츠 모두 **타임 옴므**. 골드 체인 블랙 태슬 로퍼 **쥬세페 자노티**. (오른쪽) 그래픽 체크 패턴 재킷과 팬츠, 스트라이프 니트 롱, 화이트 셔츠, 블랙 로퍼 모두 **롤 스미스**.





(왼쪽) 입체적인 그래픽 패턴의 오렌지 컬러 재킷과 팬츠, 블랙 시스루 셔츠 모두 **구찌**. (가운데) 다크 그린 재킷과 팬츠, 오렌지 컬러 셔츠, 블랙 타이, 캥거루 퍼 블랙 로퍼 모두 **구찌**. (오른쪽) 네이비 재킷, 파스텔 블루 실크 셔츠, 오렌지 컬러 팬츠, 브라운 퍼스트랩 샌들 모두 **구찌**.



(왼쪽) 그레이 코트, 그레이 체크 재킷과 팬츠, 화이트 셔츠, 그레이 니트 타이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구찌**로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가운데) 블랙 코트,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구찌**로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오른쪽) 체크 패턴 코트, 버건디 톤, 다크 파플 컬러 팬츠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구찌**로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왼쪽) 그레이 벨벳 수트, 그레이 터틀넥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구찌**로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오른쪽) 블랙 코트,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구찌**로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왼쪽부터 첫 번째) 블랙 패턴의 셔츠, 스웨이드 블라우스, 화이트 셔츠, 마스터드 컬러 일컷의 블랙 슈츠 모두 루이 비통.
 (두 번째) 가죽 클링 배낭, 더블브레스트 그레이 슈트, 화이트 셔츠, 블랙 스카프 모두 토즈. (세 번째) 그레이 슈트,
 그레이 셔츠, 블랙 스카프, 화이트 컬러 일컷의 블랙 슈츠 모두 루이 비통. (네 번째) 그레이 셔츠, 반에 레이어드한 블랙 코트, 그레이
 팬츠, 블랙 슈츠 모두 프라다. (다섯 번째) 그레이 싱글 코트, 마스터드 컬러 셔츠, 그레이 팬츠, 블랙 타이, 블랙 슈츠 모두 프라다.

(왼쪽) 마스터드 컬러 더블브레스트 코트,
 에스닉 패턴의 퍼플 셔츠, 스웨이드 블라우스,
 레오파드 패턴의 셔츠, 그레이 팬츠 모두 바버리 프로섬.
 (오른쪽) 퍼 트라킹의 블루 코트,
 에스닉 패턴의 퍼플 셔츠, 그레이 팬츠 모두 바버리 프로섬.
 주얼 장식 그린 체크 슈츠 류세베 자노티.

- 보태가 베네타 02-3438-7883
- 윌프 로렌 02-545-8200
- 페라가모 02-3430-7854
- 에르메스 02-3149-9532
- 발렌티노 02-2015-4653
- 타임 울드 02-3416-4394
- 류세베 자노티 02-543-1937
- 폴 스키스 02-6957-5815
- 바버리 프로섬 02-3485-6536
-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 구찌 1577-1921
- 에르메스/제나 02-518-0285
- 루이 비통 02-3432-1854
- 토즈 02-3438-6008
- 프라다 02-3442-1830



헤어 이선영
 메이크업 이경
 모델 박성진, 민준기, 김상우, 김경수, 전준영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에디터 권유진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선클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hybrid Sportive

활동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간결하지만 남다른 유니크함이 묻어난다. 랑방스포츠 2015 F/W 컬렉션의 첫인상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세련된 도시 감성을 담다, 랑방스포츠

강인함이 느껴지는 메탈과 구조적인 나무 소재로 꾸민 랑방스포츠 매장에 들어선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다채로운 디자인과 컬러로 구성된 아우터웨어다. 랑방스포츠를 대표하는 재킷과 점퍼, 패딩 등의 아우터웨어는 언뜻 보기엔 심플한 듯하지만, 섬세한 디테일과 다양한 소재의 접목, 편안하면서도 예쁜 핏을 선사하는 구조적인 디자인, 세련된 컬러 플레이로 매장 앞을 지나가던 남성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기본 패딩과 재킷은 이제 식상할 터. 게다가 등산 점퍼를 연상케 하는 올드한 디자인은 더더욱 싫다. 그때문에 스타일을 좀 이는 남자라면 랑방스포츠의 우아한 감성을 담은 아우터웨어에 단번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랑방스포츠의 주특기인 소재의 믹스다. 다운 패딩을 니트나 울에 접목하거나, 3-레이어 기능성 소재의 조화를 통해 실용성을 높이면서도 브랜드의 개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 또 일상생활에 사는 물론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스타일리시하면서 편안한 룩을 연출할 수 있도록 어두운 곳에서 반사 효과를 내는 헬딩, 방수 봉제 기술인 심 실링 기법을 적용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현대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그래픽 타치를 주요 테마로, 스타일링에 한정적인 기을 겨울 시즌의 고민을 덜어줄 감도 높은 의상이 가득하다. 랑방스포츠만의 특별한 DNA를 느낄 수 있는 2015 F/W 신제품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목동점·판교점·대우점과 롯데백화점 본점·잠실점·부산점에서 판매하니, 스타일에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랑방스포츠 매장을 방문해보자. 문의 02-3438-6252 에터 권유진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실루엣이 인체적인 도통한 니트 점퍼, 각자무늬 패딩이 감각적이다. 50만원, 트렌드인 스타디움 점퍼 실루엣의 다운 점퍼, 직선 테이퍼를 뒀던 듯한 모양의 헬딩 포켓 디테일이 포인트다. 88만원, 편칭 디테일이 특징인 가죽 질감의 소재에서 남성미가 느껴지는 접합 점퍼, 후드가 내장되어 있다. 60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키키 컬러의 모직 소재 울판, 패딩 소재 소매, 어깨 라인이 둥근 래글런 디자인이 조화를 이뤘 유니크하면서도 세련된 시티 코트 90만원, 인조가죽 클러치에 탈착할 수 있는 다운 패딩 클러치를 더해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는 듀얼 클러치 38만원, 네이비 컬러의 저지 소재에 인조가죽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저지 백팩 48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고 도통한 울 나일론 소재에 등판, 후드 등에 부분적으로 다운 패딩을 결합한 키키 컬러 다운 믹스 점퍼 70만원, 초경량 다운 패딩 재킷으로, 클래식한 재킷과 점퍼의 디자인을 모두 겸비한 랑방스포츠의 시그니처 아이템 95만원,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팔에는 신축성 있는 부드러운 코튼 소재를, 몸판에는 따뜻한 다운 패딩을 접목한 다운 믹스 점퍼 75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매와 후드를 다운 패딩으로 제작해 개성을 부여한 스포티한 접합 니트 75만원, 터치감이 부드러운 울 소재가 돋보이는 백팩, 노트북 수납공간도 갖췄다. 48만원, 패딩이 레이어드되어 있는 3-레이어 기능성 소재에 반사 헬딩과 방수 봉제 기술인 심 실링 기법으로 기능성을 더욱 강화한 테크니컬 다운 코트. 착용감 역시 매우 가볍다. 1백10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touch of a Master

1백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브랜드 에르메네지오 제나가 도쿄에서 실험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패션계에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스테파노 필라티가 일본의 패브릭으로 일본 장인들과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 것. 동서양을 넘나들며 장인 정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한 컬렉션을 도쿄의 에르메네지오 제나 긴자 글로벌 스토어에서 직접 확인했다.

필라티, 아시아 장인 정신에 찬사를 바치다

시즌마다 선보이는 패션 컬렉션이 아닌, 특별한 주제로 한시적으로 선보이는 캡슐 컬렉션은 비교적 자유롭고 실험적이다. 지난 9월 에르메네지오 제나가 도쿄에서 펼친, 스테파노 필라티(Stefano Pilati)가 제안한 일본의 정신이 담긴 새로운 세계는 뛰어난 완성품 그 자체였다. 필라티가 직접 일본의 패브릭을 선택해 일본 장인들이 이끄는 공방과 함께 컬렉션을 완성했고, 이 컬렉션의 특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개성 넘치는 일본의 아티스트 5명을 섭외했다. 배우 카세 료, 건축가 쇼헤이 시게마츠, 미술생 2 스타 세프인 자이 유 하세가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무라카미 카이에, 작곡가 겸 뮤지션 시부야 케이치로. 이 5명의 젊은 리더를 사진에 담아낸 것은 포토그래퍼 혼마 다카시. 도쿄 아반 호텔 로비에 전시된 이들의 사진은 모두 매우 실험적이다. 패션 브랜드의 행사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술적인 요소에 집중했다. 혼마 다카시는 도쿄 도심을 배경으로 자신의 초상을 담았고, 아시아 고유의 고요한 분위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풀어냈다. 이탈리아의 자부심인 에르메네지오 제나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소재까지 개발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패션을 구현하고자 한 스테파노 필라티의 시도는 혼마 다카시의 건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사진과 만나 새로운 리더를 추구하는 제나의 진보적인 스타일에 큰 획을 그었다.

소재 선택부터 완성까지,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담긴 캡슐 컬렉션

도쿄 아반 호텔에서 열린 이번 캡슐 컬렉션 프로젝트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데님에 주목했다는 것. 수많은 초특급 브랜드에 원형의 재료, 즉 실과 원단을 공급하는 에르메네지오 제나에서 일본산 데님에 관심을 가지고 필라티의 선을 더해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드러낸 것은 물론, 완성도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옷을 선보인 것이다. 이 옷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필라티가 참 고집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이닝 하나, 박음질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고객을 상대로 최고 제품만을 소개하는 긴자 글로벌 스토어의 커스터머 어드바이저(Customer Adviser)도 이번 컬렉션의 완성도에 고개를 끄덕였을 정도다. 그는 "캡슐 컬렉션 슈즈는 가죽은 이탈리아에서, 제작은 일본에서, 위싱과 마감은 다시 이탈리아에서 작업했어요. 하나의 슈즈로 완성되기 위해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는지 상상해보십시오. 또 일본에서 생산한 원단 중 컬렉션에 사용할 몇 가지를 선택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죠. 이번 컬렉션은 일종의 실험이자 완성도에 대한 필라티의 고집을 확인시켜줍니다. 소재 전문가로서도 활동한 그의 커리어를 알 수 있는 디자인이기도 하죠"라고 이야기했다. 인상적인 데님 컬렉션부터 시즌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일본에서 생산한 메이드 투 오더 테일러링 슈트 컬렉션을 시작으로 캐주얼 재킷과 레인 코트, 셔츠는 물론 스니커즈와 포털 슈즈, 가방, 선글라스 등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이 담겨 있다. 뛰어난 퀄리티의 소재, 은근한 실루엣에 매력을 느끼는 아시아인의 취향을 반영해 텍스처와 컬러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캡슐 컬렉션 리더 미치데 에다키는 일본 도쿄의 긴자와 오사카 글로벌 스토어에서 판매한다. 에디터 배미연/도쿄 현지 취재



1 도쿄 아반 호텔에서 열린 에르메네지오 제나 캡슐 컬렉션 이벤트. 2 에르메네지오 제나 긴자 글로벌 스토어. 3 혼마 다카시가 촬영한 포토아트. 도쿄의 자연 풍경과 함께 배려해 독특한 무드를 지어냈다. 4 화이트 롱 재킷과 스카프를 우아한 멋을 드러낸 스테파노 필라티. 5 이번 이벤트의 주요 인물로 등장한 일본의 인기 배우 카세 료. 6 필라티 쿠튀르 슈즈도 일본 장인들과 함께 새롭게 재해석했다. 7 일본에서 생산한 원단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8 일본산 데님을 사용하는 도전적인 행보를 보여준 새로운 컬렉션의 데님 룩.



the modern Classic



빨질레리, 진화된 패션을 선보인다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드들이 신라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손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비느질에서 느낄 수 있듯, 뛰어난 품질을 보증하는 장인 정신과 세련된 컬러 매치 때문 아닐까. 이탈리아 태생인 빨질레리 역시 슈트를 입어본 남자들이라면 다시금 선택하는 브랜드로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전통적이고 정교한 봉제 기술로 완성한 비접착 슈트는 보디라인을 살린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착용 시 최고의 실루엣과 착용감을 선사해 빨질레리의 자부심인 아이템이기도 하다. 이러한 빨질레리가 2015 F/W 시즌 기능성과 스타일에 혁신을 더한 아방 크래프트 라인을 선보인다. 전위, 혁신을 뜻하는 'avant-garde'와 장인, 수공예를 의미하는 'craft'를 결합해 탄생한 아방 크래프트는 발수 기능을 갖춘 울과 캐시미어를 적극 활용한 코트, 무스탕 재킷으로 품격을 높인 스타일을 지향한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캐주얼 룩에 적합한 테일러드 데님, 저지 셔츠는 물론, 포멀한 감성과 활동성을 더한 스트링 팬츠 등 하이엔드 캐주얼 룩도 선보여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지만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제공한다.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 빨질레리 아방 크래프트

"이번 시즌 남성복 트렌드를 살펴보면 볼륨감이 있지만 가벼우면서도 포근한 느낌이 드는 알파카 소재를 많이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빨질레리 역시 아방 크래프트 라인에서 블루 알파카 코트를 제안합니다. 스웨터와 진 팬츠를 매치하면 캐주얼한 스타일을, 포멀한 슈트와 코디하면 정통 클래식 룩을 좀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빨질레리 디자인 실 운영진 실장의 설명이다. 이처럼 빨질레리는 다가올 겨울,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남성들을 위한 룩을 추천했다. 특히 아방 크래프트 라인을 통해 젊은 연령대도 소화할 수 있도록 레터 블루종, 진 팬츠, 더블브레스트 체크 코트 등 다채로운 아이템을 제시했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감성이 묻어나는 그린, 머스터드, 블루 등 고급스럽고 화려한 컬러들을 더했다.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아이템이 주목받는 시대인 만큼, 빨질레리의 아방 크래프트 라인은 고급스러운 수공예적 테일러링에 활동성과 기능성을 접목해 남성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듯하다. 문의 1599-0007 에디터 김지혜

COLOR MATCH STYLE

겨울철 품격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인 코트. 블랙보다는 컬러감이 있는 재품을 선택해 이나외의 컬러 매치를 즐겨보자. 블루 알파카 코트 1백69만원, 머스터드 컬러 스웨터 39만원, 인디고 진 팬츠 27만9천원 모두 빨질레리.



CLASSIC SPORTISM STYLE

이탈리아 클래식 감성과 스포티즘이 조화를 이뤘다. 자칫 후속군해 보일 수 있는 캐주얼과는 다른 빨질레리의 아방 크래프트 룩은 비즈니스 캐주얼로도 손색없다. 블랙 무스탕 재킷 2백99만원, 그레이 터틀넥 스웨터 23만9천원, 스트링 울 팬츠 23만9천원 모두 빨질레리.



the soul Mate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인 향수. 만년필부터 워치, 레더 아이템까지 언제나 클래식하고 우아한 품격을 선보인 몽블랑(Montblanc)이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처럼 두 사람만의 은밀한 커플 향수, 엠블럼(Emblem)과 레이디 엠블럼(Lady Emblem)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몽블랑 레이디 엠블럼 오드 퍼퓸. (오른쪽) 몽블랑 엠블럼 오드 트왈렛.

여자를 위한 골드빛 터치, 레이디 엠블럼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은 단연, 불변의 진리라 손꼽히는 다이아몬드다. 레이디 엠블럼은 몽블랑의 심플한 만년필로 뒤덮인 몽블랑 신의 봉우리를 형상화해, 여성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또 하나의 다이아몬드로 탄생했다. 실제 몽블랑 다이아몬드와 견주어도 완벽한 지대를 자랑할 만큼 유려한 광채가 인상적인 레이디 엠블럼은 로즈 시계 상자를 함유해 은은하고 우아한 향기를 느끼게 해준다. 이어서 로즈, 설파크 제스민, 샌들우드와 조화를 이뤄 파우더리하면서 여성스러운 향으로 마무리되는 제품으로, 핑크 골드 패키지를 더해 아름다운 오브제로도 손색없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좋게 하나씩 엠블럼과 레이디 엠블럼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 우디 향과 플로럴 향이 조화를 이루듯,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연인들의 향수로 탁월한 선택될 것.

클래식한 신사를 위한 엠블럼 자신의 선택과 취향에 있어 자신감이 넘치고, 클래식하고 모던한 스타일을 즐기는 그의 셔츠 포켓에는 만년필이 꽂혀 있다. 단순하고 클래식한 몽블랑 엠블럼을 사용하는 남성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1백여 년의 장인 정신이 담긴 명품, 몽블랑의 만년필처럼 섬세하지만 강인한 남성상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엠블럼은 핑거링의 명가 제품답게 인크병과 문진을 연상케 하는 보물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레이프 프루츠와 로즈메리의 시원한 향으로 시작되어 키르다움, 블랙 페퍼, 파출리를 더해 클래식한 향기를 선사하는 엠블럼은 몽블랑의 모든 '우아한 품격, 변치 않는 가치를 제대로 표현했다. 너무 무겁지 않은 프레스이 우디 계열의 향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가벼워 데일리 향수로 제격이다. 문의 080-800-8809 에디터 배미진

True Story of my life

중저음의 보이스와 분위기 있는 마스크가 매력적인 배우 탕웨이, SK-II의 한국 공식 모델로 선정된 그녀가 조금은 서툴지만,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수많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가 말하는 삶에 대한 아름다운 도전, 체인지 데스티니(Change Destiny).



탕웨이의 체인지 데스티니

지난 9월 3일,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SK-II 피테라 나잇.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가 있었으니 이날의 주인공, 배우 탕웨이다. 김태용 감독과 결혼한 후 달콤한 신혼을 만끽하고 있을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삶에 도전하고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여성들에게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체인지 데스티니(Change Destiny) 캠페인, 체인지 데스티니 캠페인은 SK-II가 출시된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한국에서의 첫 번째 타자로 탕웨이가 주목되었다. SK-II의 모델이자 체인지 데스티니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그녀는 이날 마련된 무대에 올라 처음으로 영화 속 모습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어렸을 때, 저의 모든 것은 부모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두 분 모두 문예 쪽에서 일하셔서 부모님의 결정 아래 그림을 배웠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어떤 언어든 많은 종류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 했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신문에 실린 미국 교환학생 신청서를 보고 기회라 생각해 도전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흐지부지 끝나버렸죠. 그래도 꼭 외국에 나가 언어를 배우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배우가 되어 첫 영화를 찍고 난 뒤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왔고, 런던의 연극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열다섯살 때 꾸었던 꿈을 스물일곱살이 되어 드디어 이루게 되었던 거죠"라며 어릴 적 이야기로 운을 댔다. 탕웨이의 출중한 영어 실력은 그녀의 영화를 본 이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 심지어 짧은 광고 속에서 던지는 한마디에도 그녀만의 임팩트가 느껴진다. 하지만 그녀는 유학 당시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녀 혼자만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형편없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연극 수업 중 아는 단어가 거의 없어 선생님께 대본을 읽어달라고 요청했고, 녹음본을 들으며 영어를 터득했다고. 그녀는 "어려움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요. 무서워하든 무서워하지 않든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어려움이 닦혔을 때 마주하고 포용해보세요"라며 모든 일의 밑거름은 어려움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스스로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준다고 강조했다.



SK-II와 함께하는 피테라 나잇 파티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자신의 스토리를 공유한 탕웨이는 유학 생활 덕분에 한국 영화 <만추>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 인정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 다른 모습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자랑스럽게 여긴다. 탕웨이의 열정적인 강연이 끝나고 난 뒤 이어진 피테라 나잇 파티는 체인지 데스티니 캠페인 론칭을 축하하는 자리로, 평소 SK-II 마니아인 셀럽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히 SK-II의 모델인 이연희와 탕웨이의 만남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터뜨리게 하며 파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번 제품을 사용해 본 이들이라면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마니아층이 든든한 브랜드답게 고객들의 애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피테라 나잇 1천 개의 방을 선보였다. 이곳에서는 나이 든 주조사의 손을 아치처럼 부드럽게 만들었던 피테라 에센스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인생을 회전문밖에 빗대기도 하고, '원이라고도 표현하지 않던가. 힘든 순간이 와도 계속 걸어가다 보면 기회를 만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말처럼 강연을 통해 그녀의 강인한 내면을 마주할 수 있었다. 진실이 담긴 이야기는 힘이 있고, 듣는 이에게 감동을 준다. SK-II가 여성들에게 선사하는 파부의 기적처럼 체인지 데스티니 캠페인 역시 당신의 인생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문의 080-023-3333 에디터 김지혜



1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꾸민 탕웨이, 빛나는 피터민틀이나 삶에 대한 그녀의 열정 역시 아름답게 빛났다. 2 중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고 있는 배우 탕웨이, SK-II의 한국 공식 모델로 선정된 그녀가 이번 행사 포토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3, 4 탕웨이의 열정적인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행사에서는 SK-II 피테라 에센스 마.이들이 모여 베스트셀러 제품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Reset your skin

지금 당신의 피부가 원하는 것은 아기 피부처럼 이상적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피부가 가장 건강하게, 스스로 빛나던 그때처럼. 고갈된 에너지와 수분, 광채를 가득 채워줄 충전지이자 피부를 위한 첫 번째 알람이 되어줄 '크레마 네라 아쿠아 판텔레리아'라면 피부를 과거로 되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피부를 깨워주는 기적의 에센스 탄생

매일 변화의 연속인 시대에 피부는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고 그만큼 쉽게 지쳐버린다. 하루가 다르게 피부가 생기를 잃어 무색해지고 예전처럼 속면이나 스페셜한 케어로도 심사의 회복되지 않는다면 방전된 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듯 피부를 깨울 수 있는 에너지와 영양, 수분을 즉각적으로 공급할 때다. 럭셔리 스킨케어 라인 '크레마 네라 엑스트레마'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미네랄워터 에센스 '크레마 네라 아쿠아 판텔레리아'는 바르자마자 피부에 수분과 에너지를 충족시켜 피부를 깨운다. 궁극의 안티에이징 유효 성분을 담고 있음에도 무알코올에 가벼운 저자극성 젤 형태로, 바르는 순간 워터처럼 변해 피부에 보다 완벽하게 밀착되는 동시에 깨끗하고 청량한 느낌을 준다. 첨단 테크놀로지로 고농축한 영양분이 손길 닿지 않는 곳까지 퍼져나가 갈수록 침투해 광채로 코팅한 듯 윤기 가득한 피부로 가꿔준다. 피부 세포에 생명력과 광채, 수분을 가득 채우고 나면 다음 단계 제품이 빠르게 침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물론 아기 피부로 다시 태어난 듯한 효과를 선사한다.

미네랄과 오가닉 식물의 조우가 만들어낸 기적

크레마 네라 아쿠아 판텔레리아가 이렇게 특별한 효과를 선사할 수 있는 데에는 아르마니 연구소에서 탄생시킨 안티에이징 특허 성분과 디자인어 조르조 아르마니가 사랑하는 판텔레리아 섬이 한몫을 했다. 피부 세포 하나하나를 수분과 광채,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주는 크레마 네라 엑스트레마 라인의 탄생 스토리는 신비의 섬, 판텔레리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비옥한 토양과 천연 온천, 진흙으로 유명한 이 섬은 무려 1천 년 전부터 기적의 재생력을 지닌 생명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는 전설이 있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생명의 샘'이라 불려왔다. 그도 그럴 것이 화석화된 용암에서 추출한 이 섬의 흑요석은 지구 상의 모든 생물체에 필요한 네 가지 필수 미네랄(철, 규소, 소듐, 포타슘)과 풍부한 생명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것. 세포 재생에 대한 연구에 명성이 높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 라파엘 연구소는 이 흑요석에 숨겨진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혁신적인 코즈메틱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세포의 신화를 촉진하고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철, 피부의 탄력과 유연성을 보강하는 규소, 피부 깊숙이 영양분을 전달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소듐과 포타슘으로 이루어진, 움직임이 미세할수록 활성이 높다는 명칭의 특허받은 이 포물리는 세포의 재생을 활성화해 아기 피부처럼 이상적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근원이라 믿는 조르조 아르마니 연구소는 궁극의 안티에이징 스킨케어를 완성하기 위해 천연 미네랄에서 얻은 귀한 성분 외에 신화 속 천천초로 불리는 오가닉 식물 레비넨탈리스를 함께 선택했다. 불로초는 수십 년간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물 몇 방울에 다시 살아날 정도로 놀라운 생명력과 수분 보유력을 지녔다. 그러한 힘을 그대로 피부 세포에 적용해 복고되거나 새수를 갖 마친 얼굴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혁신적인 세 가지 포물리의 완벽한 결합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크레마 네라 아쿠아 판텔레리아는 판텔레리아 섬이 지닌 무한한 생명력과 조르조 아르마니가 4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모든 테크놀로지를 한 병에 집약한 이프스카도 하도 과안인이다. 피부 깊은 곳까지 풍부한 수분을 전달하는 하이드레이팅 복합체와 맑고 깨끗한 최적의 피부 상태를 유지해주는 옵시디안 미네랄 콤플렉스™, 피부 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선사하는 레비넨탈리스 성분, 이 세 가지 포물리의 환상적인 결합은 24시간을 주기로 낮에는 여백과 보호, 밤에는 재생과 치유의 메커니즘을 반복하는 피부에 마법을 선사한다. 끈적이지 않고 피부에 촉촉하게 흡수되는 점성 있는 묽은 텍스처가 돋보이는데, 매일 아침 물 한 잔으로 잠든 몸을 깨워듯 스킨케어 첫 단계에 단독으로, 혹은 화장실에 듬뿍 묻혀 발라주면 지친 피부를 생기 있게 일깨워 줄 것. 이와 함께 하이엔드 안티에이징 케어를 실현해줄 크레마 네라 엑스트레마 에센스, 크림을 사용하면 더 큰 사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자연에서 온 신비롭고 강력한 힘을 몸소 느껴 보길. 크레마 네라 아쿠아 판텔레리아 150ml 17만원대, 크레마 네라 엑스트레마 수프림 리버이징 에센스 30ml 40만원대, 크레마 네라 엑스트레마 수프림 리버이징 크림 50ml 40만원대. 문의 080-022-3332 에디터 권유진



1 크레마 네라 엑스트레마 크림, 에센스, 아쿠아 판텔레리아로 구성된 크레마 네라 엑스트레마 라인 은 미네랄과 오가닉 식물의 만남으로 탄생한 혁신적인 테크놀로지인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아 노화의 여러 징후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미네랄이스가 되어줄 것. 2 관능적인 이빨은 여성의 실루엣이 눈길을 사로잡는 크레마 네라 아쿠아 판텔레리아의 모델 비주얼. 3, 5 조르조 아르마니에서 4년간 연구해 개발한 기술을 모두 집약한 신제품, 크레마 네라 아쿠아 판텔레리아. 4 아르마니가 사랑하는 신비로운 섬이자, 아쿠아 판텔레리아의 성분을 채워낸 판텔레리아 섬.



oil from Nature

어려운 화장품 성분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고 화장품 회사에 전 성분 공개를 요청하는 소비자가 부쩍 늘어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전 단순히 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유기농 인증 마크 유무를 따질 때, 유기농 인증을 받은 화장품만을 선보이는 브랜드, 멜비타(Melvita)의 제품이라면 믿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오로지 100% 유기농 원료만을 담은 일곱 가지 뷰티 오일은 멜비타를 대표하는 피부 맞춤 만능 오일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진정한 오가닉 화장품, 멜비타

오가닉 화장품은 다 똑같다? 절대 아니다. 단순히 식물성 성분을 사용하는 자연주의, 혹은 천연 화장품과 혼동해서 안 된다. 진정한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인증 기관의 관리하에 청정 재배와 무공해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료뿐만 아니라 원료 재배부터 가공 과정과 화장품에 담은 패키징까지 유해한 오스와 공정은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 유기농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시되는 수백 개가 넘는 화장품 중에서 진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싶다면, 화장품 보틀에 새긴 유기농 인증 마크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믿을 만한 대표적인 유기농 인증 마크는 에코서트(ECOCERT)와 코스메비오(COSMEBIO)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시스템으로, 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에코서트는 유럽공동체(EU)가 정한 법률에 따라 95% 이상의 천연 성분과 10% 이상의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고 미네랄 오일, 인공색소, 방부제 등 화학 성분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랑스 정부가 공인하는 유기농 화장품 인증 라벨인 코스메비오는 유기농 성분이 최소 95%야 하고 자연 원료의 95% 이상, 식물성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재배부터 모든 제조 과정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만큼 인증을 받기란 쉽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인증을 모두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멜비타는 스킨케어는 물론 샴푸, 세럼, 로션 등 제품 전 라인업이 이 두 가지 인증을 모두 받은 몇 안 되는 유기농 브랜드 중 하나다. 1백 개가 넘는 브랜드의 모든 제품이 엄격한 인증 시스템을 통과했다는 점은 건강한 화장품만을 선보였다는 브랜드의 굳은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멜비타의 탄생 배경 역시 흥미롭다. 프랑스 아르데주 지방에서 양봉을 하던 생물학자 베르나르 세빌리는 환경오염으로 꿀벌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친환경 제품에 관심을 기울였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유기농 벌집 성분의 바누를 개발한 것. 바누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본격적으로 유기농 스킨케어 제품을 생산한 것이 멜비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리터어로 꿀(mel)과 살(vita)이라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 이름을 지었고, 현재는 100% 천연 원료로 화장품을 만드는 프랑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로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사랑받고 있다.

믿고 사용하는 100% 유기농 만능 오일

멜비타를 대표하며, 베스트셀러 아이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아이코닉한 제품을 꼽자면 어떠한 칭찬도 없이 100% 유기농 원료를 담은 뷰티 오일이다. 화학적 용해제를 사용하지 않고 냉압법으로 추출한 원료의 영양 성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 피부 타입, 고민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도록 총 7종의 뷰티 오일을 선보이는데, 그중 첫손에 꼽는 베스트셀러 오일은 4백 개의 아르간 넛을 한 병에 담은 '오가닉 아르간 오일'이다. 유스스킨가 자랑한 모로코의 생물권 보전 지역인 예시우리아 지역에서 생산하는 아르간 넛을 5백여 명이 모로코 베르베르크 여성들이 직접 손으로 수확하고, 오일 추출까지의 모든 단계를 담당한다. 멜비타의 아르간 오일만을 위한 아르간 숲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은 투명하고 완벽하게 관리된다. 이렇게 탄생한 아르간 오일은 얼굴은 물론 보디, 헤어까지 촉촉함과 윤기를 원하는 어느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오메가-6, 오메가-9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아준다. 이와 함께 여드름,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호호바 오일', 피부를 맑고 환하게 가꾸주는 '아프리카 커널 오일', 탄력 있는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개선하는 '로즈힙 오일', 민감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칼렌듈라 오일', 지성 & 복합성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니겔라 오일', 눈가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높이는 '아보카도 오일' 등의 라인업을 갖춰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혹은 그날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 오일을 선택하면 된다. 오일에 대한 편견을 깬 만큼 끈적이지 않는 텍스처도 단연 으뜸이다. 뷰티 오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에센스 워터에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오일 미스트로 사용하거나, 크림과 오일을 믹스해 나만의 초강력 보습제를 만들어볼 것. 화장실에 오일을 듬뿍 묻혀 팩을 하면 비싼 에스테틱에 가지 않아도 트러블 없는 건강한 피부로 가꿀 수 있다. 그동안 멜비타의 모든 제품은 가로수길에 위치한 뷰티코, 롯데백화점 본점, 여의도 IFC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등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올가을부터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피마에 스트리트와 삼성역 파르나스몰에서도 멜비타가 전하는 오가닉 스킨케어의 강력한 힘을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멜비타 매장에 방문해보자. 문의 02-3014-2997 에디터 권유진



1 올가을부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피마에 스트리트와 삼성역 파르나스몰(10월 초 오픈 예정)에서도 멜비타 매장을 만날 수 있다. 2 모로코 예시우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르간 넛. 멜비타 아르간 오일 한 병에 무려 4백 개의 아르간 넛이 들어있다. 3 지성 & 복합성 피부에 추천하는 니겔라 오일은 피부 트러블 진정과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니겔라꽃이 함유되어 있다. 4 로즈힙 오일에는 피부의 수분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로즈힙 성분이 담겼다.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평일보>와 프랑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멜비타가 함께하는 스페셜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멜비타 매장을 방문하시는 독자분께 멜비타의 베스트셀러 아르간 뷰티 오일을 증정합니다.

◆ 증정품 아르간 뷰티 오일 5ml ◆ 기간 2015년 10월 7일(수)~31(일) ◆ 교환 매장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피마에 스트리트(02-3479-1831), 파르나스몰(02-3453-2660), 롯데백화점 본점(02-726-4100), 신사동 가로수길 뷰티코(02-544-2505), 여의도 IFC몰(02-6137-5101),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051-745-1425)

* 증정품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왼쪽) TV에 캐논 커넥트 스테이션 CS100을 연결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였을 때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대형 화면을 통해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오른쪽) 전문기로 도입하고자 하는 액티브 유저에게 추천하는 프리미엄 준중급 DSLR 카메라 EOS 760D.



smart Device

사진을 찍기에 가을만큼 좋은 계절도 없다. 간편하게 고품질의 사진을 찍고 싶다면 캐논의 고성능 DSLR 'EOS 760D'가 안성맞춤이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고 이를 사람들과 공유하길 원한다면 EOS 760D와 함께 스마트 디바이스 커넥트 스테이션 CS100이 필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무선으로 전송받아 저장·관리하는 것부터 가족과 함께 대형 화면으로 사진을 감상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등의 공유 작업까지, 이보다 더 쉽고 편리할 수 없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액티브 유저를 위한 고성능 DSLR, EOS 760D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공간을 이끔어내는 행위는 이제 모두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다. 일상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공감과 소통을 지속하는 것은 필수 요소. 이를 더 적극적으로 감도 높게 즐기 고 싶다면 오는 10월 13일 출시될 캐논 DSLR EOS 760D에 기대를 걸어도 좋다. 'EOS 760D'는 중급기에 버금가는 고성능을 갖춰 다양한 렌즈를 활용해 고화질의 사진을 찍고자 하는 액티브 유저를 타겟으로 한 프리미엄 준중급 DSLR 카메라다. 출사, 전시, 집필 등 사진을 찍어 전문적인 활동을 즐기거나 하는 소비자는 물론 콤팩트,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보다 완성도 높은 사진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격인 제품이다. 약 2천4백20만 화소 CMOS 센서에 디지(DIGIC 6) 이미지 프로세서 탑재하고 중급기와 동일한 '19 포인트 울크로스 AF'를 장착해 움직이는 피사체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라이브 뷰 촬영 시에도 서보 AF 기능을 지원하고 초당 약 5매의 사진을 연속으로 촬영할 수 있어 움직임이 빠른 아이나 동물의 모습도 놓치지 않고 촬영할 수 있다. 또 중급기 이상 모델에만 적용하는 상단 액정 패널, 퀵 컨트롤 다이얼과 디지털 수평계를 갖춰 편리함을 더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선착순 2천 명에게 시은품을 제공하는 EOS 760D 퍼펙트 매치 키트 런칭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매력적인 구성으로 만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중 EOS 760D 베스트 매치 키트(EOS 760D 18-135㎜)를 구매하고 캐논 홈페이지에 정품 등록하면 정품 배터리 그립(BG-E18) + 정품 배터리 리(LP-E17) 패키지를 증정하니 좋은 기회다.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TV를 통해 가족과 사진을 공유하고 싶다면 커넥트 스테이션 CS100을 더하면 된다.

시대에 부응하는 디바이스, 커넥트 스테이션 CS100

사진 전문가가 아니라도 셔터를 누르는 즐거움, 소중한 이와 함께하는 건민의 외출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을 만큼 신바람 나게 한다. 그렇지만 집으로 들어선 순간 촬영한 사진을 분류해 보관하고 정리하는 일은 미루기 일쑤다. 카메라 또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옮기고 저장한 후 날짜별로 나누고 확인, 수정하는 일련의 작업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일이다. 게다가 즐겨 사용하는 SNS 채널에 올리거나 하던 시간은 배가된다. 이런 연유로 수백 장에서 1천여 장까지 사진을 미뤄둔 파일을 카메라에 그대로 담아 출사를 나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최근 캐논에서 새롭게 출시한 커넥트 스테이션 CS100은 이러한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한, 스마트한 디바이스다. 사진과 영상을 간편하게 정리하고 공유하며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이미지 저장 장치로, 와이파이와 기본이고 NFC 기능을 탑재해 연결선 없이 무선으로 이미지나 동영상도 저장할 수 있게 했다. NFC란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근거리 무선통신을 말하는데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의 기기를 다른 기기에 맞대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버스 카드도 이 형식에 따라 운영된다. 카메라, 캠코더 등 NFC 기능이 있는 기기를 가까이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되니, 그야말로 시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별도의 선 없이, 기기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기만 하면 사진 전송

커넥트 스테이션 CS100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함 그 자체다. 와이파이와 NFC가 지원되는 2014년 이후 출시 제품이라면 손쉽게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 기기 위에 카메라를 살짝 올려놓기만 하면 완료. 사진이나 동영상 전송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카메라와 기기 각각에 내장된 NFC를 이용해 무선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이라, 복잡한 케이블 선에서 해방될 수 있다. PC에서는 사진 관리가 번거롭고 복잡한 반면, 이 기기는 날짜와 카메라 기종을 자동

으로 분류하는 똑똑한 기능을 갖췄다. 날짜만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종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은 육아 사진을 자주 찍거나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는 이들에게 매우 편리한 아이템이다. 저장한 이미지로 새롭게 앨범을 구성하거나 사진을 관리하는 방법도 수월해, 성장 앨범 준비 시 필요한 사진, 여행 시 촬영한 이미지 등을 효과적으로 구별해 정리할 수 있어, 이 기기를 잠시나마 체험해본다면 단번에 그 매력에 빠져들 것이다. 소장한 카메라에 와이파이나 NFC 기능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다. 또 CF카드와 SD카드 슬롯이 있어 별도의 메모리 카드 리더기를 가져지 않아도 저장 기능을 완벽히 수행해준다. 와이파이 기능을 활용하면 포토 프린터에 자동으로 사진이 전송돼 즉시 인쇄할 수 있다.

가족·연인·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보는 즐거움

집들이나 명절, 혹은 주말 여행 후에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이 모였을 때 대형 화면으로 사진과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또한 이 기기의 강력한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 커넥트 스테이션 CS100을 TV 옆에 올려둔 후 HDMI 케이블로 TV와 연결한 다음 전원만 넣으면 끝.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도 없다. 또 사진에 설정한 해두면 CS100 기기리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이라도 사진을 공유하고 감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재가 보내주는 손주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TV 화면으로 크게 볼 수 있는 것. 커넥트 스테이션 CS100의 메모리는 1TB로 사진당 6.6MB/매, JPEG 기준은 최대 약 15만 장, 동영상 파일은 약 70시간(평균 비트레이트 32Mbps Full-HD 기준)까지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자랑한다. 이제는 사진을 찍고 저장만 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공유하는 시대. 이토록 혁신적인 디바이스의 탄생은 사진을 즐기는 문화와 공유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문의 www.canon-ci.co.kr, 1588-8133 에디터 배미진

와이파이와 NFC 기능을 탑재해 카메라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무선으로 커넥트 스테이션 CS100에 전송·저장할 수 있다. 본체 위에 카메라를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사진 데이터가 전송된다.



immortal Masterpiece

오로지 한국 고객만을 위해 출시하는 맞춤형 쿡웨어가 여기 있다. 끊임없는 한국 식문화 연구를 통해 단순히 음식을 끓이는 냄비가 아니라 볶음, 굽기 등 모든 조리법에 최적화된 '노보 그릴'로 바닥을 마감한 것. 게다가 휘슬러가 선사하는 최상의 제품, 불멸의 마스터피스에만 이름을 붙인다는 프리미엄 아시안 라인 '더 크레스트 컬렉션'이니 믿고 맡겨도 좋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더 크레스트 컬렉션'은 맛과 입력상으로 출시되며, 신상품에 위치한 휘슬러 컬렉션이 한국 백화점 내 휘슬러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한국 식문화를 담아낸 휘슬러의 명작

주부들은 주방용품마저도 자신만의 공간에서 더욱 빛나는 독보적인 제품을 소장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완벽한 품질로 무장해 주부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독일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휘슬러. 이제 한국에서는 예비 신부의 필수 호수로 통할 정도로 탁월한 품격과 퀄리티를 100% 인정받고 있다. 1백70년간 전 세계 주부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가장 열렬한 지지를 보낸 한국의 주부들을 위해 휘슬러 코리아는 최고급 냄비 라인 '더 크레스트 컬렉션 프로노보'를 선보인다. 물론 휘슬러의 제품이 모두 고품질이지만 이번에 론칭하는 '더 크레스트 컬렉션'은 그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제품을 칭하는 말로 시작된다. 1백70년 전 휘슬러가 창립된 지역명인 'Hopstädten-Weiersbach'를 새긴 것이 특징으로, 이 각인은 휘슬러의 헤리티지, 장인 정신을 오롯이 담은 프리미엄 제품에만 부여하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더 크레스트 컬렉션'의 첫 번째 주자는 '프로노보' 라인. 오랜

세월 한식 문화를 연구해, 한국 특유의 조리법을 반영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못해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국이나 찌개를 만들 때 바로 끓이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볶거나 익힌 후 물을 부어 끓이는 조리 과정을 세심하게 고려해 냄비의 바닥 부분을 울록불록하게 엠보싱 처리했다. 휘슬러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자 재료를 볶는 데 최적인 '노보 그릴' 바닥을 냄비에도 적용한 것. '노보 그릴'로 조리할 경우 같은 사이즈의 평면 제품보다 단면적이 1.5~2배 이상 넓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조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에 닿는 음식 면적은 줄어 영양적 측면에서도 더 건강한 조리가 가능하니 간단하게 비교하고 따져보는 한국 주부들의 선택을 독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프로노보' 라인을 시작으로 아시아 주부들의 조리 패턴을 연구하고 개발한 맞춤형 제품이 추가될 듯. 오래 써도 끄떡없는, 편리한 도구가 만들어내는 요리의 즐거움과 든든함을 잘 알기에 현대 여성들의 요구 사항을 섬세하게 구현해내는 휘슬러. 1백70년의 전통을 통해 쌓아온 단단한 내공을 바탕으로 새긴 혁신과 도전 정신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주방 기구를 만들어온 그들을 최고의 자리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 문의 02-3448-0266 에디터 배미진

interview. Markus H. Kepka (휘슬러 글로벌 CEO)



휘슬러가 탄생 1백70주년을 맞은 것을 축하한다. 휘슬러의 발전에는 주방용품의 진화에도 연관이 깊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요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주방을 탐구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1백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휘슬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다른 어떤 소비자와의 약속이다. 휘슬러는 품질에 대한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Perfect Every Time(언제나 완벽하라)'라는 기업 이념과도 일맥상통한다. 또 앞으로도 식문화 트렌드와 소비

비자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에 소개한 신제품도 아시아형, 특히 한국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대한 짧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출시할 제품은 '더 크레스트 컬렉션(The Crest Collection)'이다. 이 컬렉션은 휘슬러의 프리미엄 아시안 라인으로, 앞으로도 계속 개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가 '더 크레스트 컬렉션 프로노보'이다. 이 라인도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주부들의 조리 패턴을 고려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제품과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더 크레스트 컬렉션'에는 특별한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은 1백70년 전 휘슬러가 창립된 호프슈타덴-바이에르스바흐(Hopstädten-Weiersbach) 지역의 문장이다. 유럽에서는 기원의 문장, 지역의 문장을 중요하게 여긴다. 휘슬러가 창립된 지역의 문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냄비의 상단 바닥이 이 컬렉션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번에 선보인 '더 크레스트 컬렉션 프로노보'는 냄비 바닥에 특별한 문장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한식의 조리 패턴을 연구해보니, 한식의 대부분이 냄비를 활용한 요리인 하얀 분짜인 조리 전에 식재료를 볶거나 익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착안해 '노보 그릴(엠보싱 공법) 기술을 적용한 패턴'을 생각해냈다. **앞으로 휘슬러의 계획은?** 본사의 R&D팀은 각국의 식문화와 주방 환경을 집중적,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한다. 이번에 출시된 '더 크레스트 컬렉션'은 최상위 라인에 휘슬러만의 기술을 적용한 최고급 제품으로 아시아, 특히 한국 주부들을 위한 것이다. 휘슬러는 주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 기업이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프리미엄 제품을 더욱 다양하게 선보이면서 아시아 주부들이 요리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Perfect prestige

최상의 스킨케어 제품이 또 다시 탄생했다. 완벽함을 구현하는 성분과 첨단 테크놀로지를 탄생시킨 특별한 텍스처, 그리고 놀라운 효능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피부. 지금, 오랜 시간에 걸친 연구와 노력으로 탄생한 다음 프레스티지 라인에 주목해야 할 때다.

다음 프레스티지 라인의 생명력, 로즈 드 그랑빌

오래전 크리스찬 디올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랑빌 지역 근처의 비릿가 절벽에는 매우 강한 생명력과 활력을 지닌 야생 장미가 자라고 있었다. 디올은 이 장미가 지닌 뛰어난 생명력을 연구하고자 했고, 실력 있는 원예가와 권위 있는 프랜시스 로즈 전문가를 초빙했다. 10년에 걸친 7세대 교배 연구 끝에 장미의 유전자 공급원이 1백 배 이상으로 풍부해졌다. 만개하는 꽃의 수차와 1년에 만개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이 장미의 강한 생명력과 활력은 극대화되었다. 이 특별한 과정을 통해 일반 장미에 비해 2배 이상의 활력 에너지를 지닌 로즈 드 그랑빌이 탄생했다. 디올만의 상징적인 프리미엄 로즈, 로즈 드 그랑빌은 루아르(Loire)에 있는 디올 기든의 비옥한 환경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다. 쾌적하고 뛰어난 환경 덕분에 성분의 효능은 최상으로 유지되고 재배 과정은 최상의 퀄리티를 유지한다. 활성 분자가 가장 많이 농축되는 시기에 수작업으로 정성껏 수확하기 때문이다. 오를레앙 대학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ICOA 연구팀과의 파트너십으로 디올은 장미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장미의 성분과 대해 이전에는 결코 연구되거나 분석, 발표되지 않았던 단계까지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로즈 드 그랑빌의 꽃잎 속 8개의 다른 분자가 뛰어난 생명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뛰어난 성분을 추출해내는 최첨단 과정, 다이내믹 냉침법

디올은 전통적인 방식과 최첨단 방식을 결합한 특별한 다이내믹 냉침법(Dynamic Enfleurage)으로 새로운 로즈 드 그랑빌 베타의 효능이 40배 이상 더 농축된 새로운 분자를 담아냈다. 냉침법은 그 안에 담긴 유효 성분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자를 추출하는 데 필수적인 추출법이다. 새로운 디올 프레스티지 제품을 위해 디올 사인스는 새롭게 특허받은 다이내믹 냉침법을 이용했다. 먼저 낮은 온도에서 아는 순간 꽃잎은 극도로 미세한 초음파를 받게 된다. 그 후 꽃잎에 매우 높은 압력을 주어 세포막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분자까지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로즈 드 그랑빌의 여덟 가지 분자를 얻고 이를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다. 이로써 이전보다 더 뛰어나며 활성 성분이 40배 이상 농축된 로즈 베타를 얻게 되었다.

2015 다음 프레스티지, 놀라운 재생력을 선사하는 새로운 리추얼

새로운 디올 프레스티지 듀오에 담긴 로즈 드 그랑빌 베타는 피부에 어떤 장미 꽃잎처럼 섬세하게 가꾸어준다. 새로운 디올 프레스티지 듀오에 농축된 로즈 드 그랑빌 베타는 피부에 섬세하게 스며든다. 그 효과는 피부 안에서부터 반으로 확장되어, 장미 꽃잎처럼 화사하고 완벽한 피부 톤으로 가꾸어준다. 새로운 디올 프레스티지 리추얼 베타와 크림 듀오의 텍스처는 매끄러움, 탄력, 팽팽함 같은 부드러움을 전하며 활짝 피어난 장미와 같은 완벽함을 선사한다. 새로운 듀오, 프레스티지 리추얼과 크림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 2015년, 디올 마스터 포뮬레이터들은 타임-마스터(Time-mastered) 포뮬레이션이라는 특별한 테크놀로지를 디올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라인의 시그니처 포뮬레이션을 재탄생시켰다. 전통적인 포뮬레이션 과정에서는, 텍스처에 열을 한 번 가한 후 식하면 자연스럽게 결정체가 생긴다. 디올 마스터 포뮬레이터들은 2015년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타임-마스터 포뮬레이션을 통해, 훨씬 작고 섬세하며 보다 균일한 결정체를 얻기 위해 텍스처에 열을 가하고 식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더욱 섬세하고 빛나며 동시에 피부 친투력이 뛰어난 포뮬러를 얻을 수 있었다.

염증성 노화 & 세포 구조, 가장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비밀을 풀다

디올이 이번 연구에 집중하던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성 염증(chronic inflammation)은 21세기 의학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 분야 중 하나다. 디올은 지난 10년간 이 분야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이것이 연이어는 코즈메틱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늘날 많은 과학 관련 단체에서도 미세 염증을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세 염증은 불안정한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으로, 반복되면 모든 피부 구조가 사서히 약해진다. 이러한 염증을 일으키는 활동은 피부에 파괴적인 연쇄반응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한다. 이것이 바로 염증이 따른 노화다. 연구 과정에서 디올의 연구팀은 IL-8(피부 구조의 밀도를 떨어뜨려, 장벽에 있는 염증을 불균형하게 하는 원인과 데스모글레인(피부 세포 사이를 응집력 있게 연결하고 제라닌에 있도록 균형 잡힌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요 단백질)이라는 성분을 발견함으로써, 성숙한 피부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밀을 풀게 되었다. 디올은 연구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 염증이 데스모글레인은 점점 부족해지는 반면 IL-8의 레벨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데스모글레인의 감소는 피부가 미세 염증이 더 취약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의 세포 구조는 더욱 느슨해지고 불안정해진다. 그 때문에 피부는 탄력과 견고함, 탄탄함 등 젊음의 요소를 잃는 것이다. 문의 02-3438-9637



1 새로운 듀오, 프레스티지 리추얼과 크림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향상된다. 이전보다 뛰어난 재생력의 활성 성분이 2배 더 많이 농축된 새로운 로즈 드 그랑빌 베타는 보다 초화로운 피부 구조를 가꾸는데 도움을 주고, 매끄럽고 탄탄한 피부를 가꾸어준다. 디올 프레스티지 리추얼은 특유의 부드럽고 크리미한 텍스처로 비누를 때마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향을 선사한다. 2 그랑빌의 장미는 디올 프레스티지 라인의 생명과 같은 존재다. 디올의 끊임 없는 연구와 성숙한 재배 과정을 거친 그랑빌의 장미는 피부에 대한 여성의 로망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3 지난 5월 프레스티지 행사에서 있었던 2015 디올 프레스티지 라인 프레젠테이션 현장



interview. 에두아르 모베 자르베(디올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프레스티지 라인을 위한 최첨단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만성 염증이 집중된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 어떤 계기로 만성 염증이 대해 연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보통 만성 염증을 질병으로 여기는데, 박사님이 생각하는 만성 염증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이 모든 것은 의학계에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주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 만성 염증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며 이는 미세 염증이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붓고, 주름이 생기고, 빨개지는 현상 등을 유발하는 만성 염증은 한번 시작되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미세 염증이 과장되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지? 미세 염증이 한 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이후 신호를 보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염증이 확산되는 방식은 자외선, 스트레스 등 외부 자극으로 촉진되는데, 그러면서 손상 과정이 반복됩니다. 초기에 손상된 피부가 회복되지 못하고 손상의 진행과 증진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피부뿐 아니라 인체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항산화제 등은 이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항산화제를 통해 싸우는 것은 항염증과 소염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새롭게 특허받았다는 다이내믹 냉침법이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기술과 최신 기술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첨단 기술로 성분을 추출해냅니다. 냉침법은 아주 오래전 향수를 만들 때 연약한 식물의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꽃잎을 아주 낮은 온도에서 얼린 후, 따뜻한 오일에 담고 재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초음파를 통해 꽃잎의 분자를 추출해내는데,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은 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연구진들이 프레스티지 라인을 위해 지금까지 수행해온 과학적 연구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 결과를 얻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새로운 프레스티지 라인을 위해 시작한 연구가 있는지? 프레스티지 리추얼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연구해왔습니다. 피부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해 미세 염증이 대한 연구 결과를 모으고, 이것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프레스티지 라인의 핵심인 로즈 드 그랑빌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새로운 버전도 이미 연구 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며 연구하고 있고, 보다 새로운 것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 시작한 연구도 있고, 이미 완성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미의 잠재력을 아직 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한 장미종을 개선할 수도 있고,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장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 제품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ditor's Pick

'내추럴 뷰티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더욱 중요해진 베이스 메이크업. 한 두 안한 듯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위해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미리 체험해본 이달의 코스메틱,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레쉬 슈가 누드 립 트리트먼트 SPF 15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누드 컬러의 립 트리트먼트. 건조한 입술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꾸주는 동시에 끈적이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자주 덧바를 필요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같은 라인의 로제 컬러를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이 제품 역시 애용하게 될 듯하다. 4.3g 3만4천원. 문의 080-822-9500_by 에디터 김지혜

글레드보 보에 르 세뮈르 푸르 레네브르 30대를 넘어선 고년도는 것이 목주뿐만 아니라, 입술이 탄력을 잃어 립 컬러 발생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이 특별한 립 세뮈르를 추천한다. 스킨케어 라인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브랜드이기에 입술 피부를 매끄럽게 다룬다.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사용하면 발색이 높아지며 잡들기 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충분히 마사하면 탄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 15ml 8만7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배미진

결함 키스키스 로즈뮌 밤 립스틱과 랩핑을 결합한 제품은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랩핑의 부드럽고 촉촉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립스틱 본연의 컬러와 발색력을 갖춘 제품은 흔치 않다. 얼음에 생가를 다하는 예쁜 컬러에 반하고, 시간이 지남에 입술이 갈라지지 않는 촉촉한 보습에 두 번 반복 한동안은 이 타이트 랩핑에 정착할 듯하다. 2.8g 4만5천원. 문의 080-343-9500_by 에디터 권유진

아모레퍼미픽 모이스춰 비온드 스킨 에너지 미스트 사용해보면 수렴은 미스트 중, 본래이 뛰어난 제품 상위권에 드는 미스트다. 아주 고르게, 피부에 안개가 스며들게 내어준다. 미세하게 분사되는 것이 특징이다. 물을 섞지 않고 오로지 데스모글레인을 사용해 장시간 촉촉하고 부들부들한 피부를 유지해주는 것도 이 제품의 이점이다. 200ml 6만5천원. 문의 080-020-5757_by 에디터 권유진

아쿠아 디 파르마 아쿠아 노비타 로사 오 드 퍼퓸 앰플은 이탈리아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신성한 향기. 이른 아침 장미 정원을 산책하는 듯 신성한 기분을 표현한 제품으로 시원한 베르가모트 향과 블랙 페퍼, 마스코 장미, 마스코의 향기가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글래머러스하고 신성한 장미가 인상적인 제품이며 해당 선물도 포함. 75ml 18만5천원. 문의 02-517-5218_by 에디터 배미진

슈에루아 오트 하드 포뮬라 오트 펜슬 타입 제품.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인 아군을 사용했는데 눈섭 곁을 따라 가볍게 칠하면 핏을 뽀얀데 아이브로를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었다. 특히 오트 타입이 기존 펜슬처럼 갖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게다가 하단 캡 안쪽에 스펀지가 내장되어 있어 펜슬 상이 부러져도 문제없다. 0.3g 4만5천원.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김지혜

리프레시 스킨 케어 컨실러&파운데이션 SPF 15 깨끗한 피부 표현에 반드시 필요한 파운데이션과 컨실러가 한 용이로! 투광의 윗부분을 얇은 크림 타입 컨실러가 모습을 드러낸다. 게다가 귀여운 귀여운 색상을 더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인티메이징 효과를 느낄 수 있다. 30ml 29만5천원. 문의 080-511-6626_by 에디터 권유진

메이퀸 클레어리프 리프팅 마시저 전통 클렌저인 클렌징 안헨샤 마시저로 변신했다. 백운도 코팅한 마시저를 이용해 턱 라인과 데콜레, 목부터까지 버튼을 누르고 3분 정도 사용하면 뭉친 근육을 풀고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인체를 밝혀준다. 메이퀸은 다리 근육이 뭉쳤다고 느껴졌을 때 부기를 빼는 용도로도 사용했다. 클렌징 안헨샤 20만원, 클레어리프 마시저 3만원. 문의 080-850-5454_by 에디터 김지혜

헤라 HD 퍼펙트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건조한 피부를 더욱 보습하는 듯한 사용을 가려준다. 이 제품은 묽은 제형이 피부에 가볍게 밀착된다. 파운데이션의 강장인 지속력을 갖춘 것은 물론 코부위 모공까지 매끈하게 커버해준다. 30ml 5만원. 문의 080-023-5454_by 에디터 김지혜

샤넬 인피니트 샴 브랜드의 상징인 CC 로고가 강렬하게 새겨진 페이스 피우더. 자연스러운 복숭아빛 피부를 완성해주는 화사한 피우더로, 얼음 전체에 가볍게 타하는 것만으로도 생기가 든다. 한정 제품으로 소량만은 증가하며 출시한다. 12g 7만원. 문의 080-332-2700_by 에디터 배미진

바비 브라운 글로우 루미너스 플루이드 베이스 누가 누가 피로한 얼굴, 소위 '갓 빛 피부' 때 비는 비밀 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세한 필 피그먼트를 함유한 피부에 화사함과 함께 반짝이는 윤기를 더한다. 30ml 5만5천원. 문의 02-3485-6536_by 에디터 권유진

SK-II R.N.A. 파워 크림 SK-II에서 선보인 이 제품은 공 발달 성분과 파우더로 밀로 성분으로 완성한 R.N.A. 콤플렉스가 피부를 쫄쫄하게 해준다. 함께 출시된 앰플과 사용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여타라면 놀라고 싶지 않을 것. 50g 13만9천원. 문의 080-023-3333_by 에디터 김지혜

대비 비노 모이스처라이징 페이스 마스크 포도수, 포도 껍질까지 그대로 함유해 항노화 효과가 뛰어난 마스크 팩. 수분이 타져 나오는 듯한 사용감이 특징인 제품으로, 매일 저녁 클렌징한 다음 바르고 10분 후에 씻어내면 하면 된다. 인공향, 방부제, 유기 색소가 들어 있지 않아 더욱 순수한 느낌이다. 가격도 합리적이다. 100ml 5만2천원. 문의 080-700-1004_by 에디터 배미진





DVF 카프리스 드레스 DVF는 2016 리조트 시즌을 맞아 로맨틱한 카프리스 드레스를 선보인다. 실루엣이 돋보이는 카프리스 드레스는 DVF 특유의 시그니처 랩 스타일로, 휴양지에 어울리는 우아하면서도 산뜻한 프린트가 멋스럽다. 시폰과 자수를 혼합한 소재로 편안까지 갖춘 카프리스 드레스는 다가오는 11월 DVF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2-3442-7114

토즈 케이프 어트랙션 토즈는 포드그래프 데이비드 베일리와 특별한 사진 작업을 진행했다. 데이비드 베일리의 예술적인 시각으로 토즈 케이프 백의 우아한 정수를 표현한 사진 작품인 케이프 어트랙션은 강렬하면서도 감각적인 이미지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작품 속 여성의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표현된 케이프 백은 토즈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인 밀안장과 유기적인 케이프 코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제품으로, 거대한적인 구조가 특징이다. 문의 02-3438-6008

랑방 컬렉션 액세서리 문칭 랑방 컬렉션은 1920년대 아르데코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37가지 라인의 핸드백 컬렉션을 출시했다. 여성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의 '오프(Haute)', 매달려있는 소재로 모던한 디자인이 주는 이로운 '라디언트(Radiant)', 유니크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의 남성 라인인 '홈(Homme)'이 그것. 이와 더불어 지갑과 카드 홀더처럼 다양한 가죽 소품과 주얼리 컬렉션을 함께 선보였다. 문의 031-5070-2263

꾸찌 칼레이도 꾸찌는 2016 크루즈 컬렉션을 통해 새로운 남성 라인지 라인 칼레이도(Caleido)를 선보인다. 칼레이도 라인은 브랜드의 아이콘 GG 수프림 프린트에 블랙 컬러의 칼레이도 스타 프린트를 매치해 세련된 분위기를 풍긴다. 특히 비즈니스 케이스는 송아지가죽 커버와 낙낙한 수납공간,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백백과 토트백, 더블 백을 포함해 다양한 스타일로 소개할 예정이다. 문의 1577-1921

프라다 인사이더 백 프라다는 2개의 가방이 하나로 합쳐진 모양의 인사이더 백을 제안한다. 프라다의 숙련된 장인의 손길로 탄생한 인사이더 백은 감각적인 컬러 매치가 특징으로, 이번 시즌 트렌드 컬러



프라다

인 핑크와 블랙의 조화가 사랑스럽다. 이외에도 타조가죽과 크로커다일 소재 등 다채로운 가죽 옵션의 인사이더 백도 함께 선보이며,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가지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문의 02-3218-5331

벨질레리 아방 크래프트 벨질레리는 이탈리아 장인 정신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 '아방 크래프트'를 출시한다. 울, 캐시미어, 소프트 레더 등 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수공예적 테일러링을 접목한 '아방 크래프트' 라인은 포일 록부터 하이엔드 캐주얼까지 다양한 TPO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선보인다. 벨질레리의 '아방 크래프트' 라인은 롯데백화점 본점·영등포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목동점 등 일부 매장에서 먼저 만날 수 있다. 문의 1599-0007

빈폴 LINK 모듈 시스템 빈폴은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 유용한 활용성 높은 아우터 컬렉션 LINK 모듈 시스템을 선보인다. LINK 모듈 시스템은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내피와 외피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번덕스러운 가을 날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우터로 활동적인 남성들에게 제격이다. 포말인 스마트 코트, 스타일링이 가능한 사파리 재킷, 스포티한 에이프리카, 남성들이 편하하는 37인치 아우터와 트래블러 재킷, 노데드 베스트, 시트론 잠퍼 등 37인치 내피로 구성되었다. 어떤 조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인 남성들을 위해 LINK 모듈 시스템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직업에 맞춰 쉽고 간편하게 아우터를 고를 수 있도록 프리 세트 가이드를 마련했다. 문의 1599-0007

랑방스포르즈 테크니컬 올백백 랑방스포르즈는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디자인의 테크니컬 올백백을 선보인다.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울 소재를 활용한 테크니컬 올백백은 다양한 내부 수납공간으로 실용성을 더했다. 유행 타지 않는 컬러와 스포티 룩, 캐주얼 룩에도 자연스럽게 매치되는 디자인이 매력적



빈폴

쥬세페 자노티 지드래곤 컬래버레이션 쥬세페 자노티는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과의 컬래버레이션을 발표한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둘의 성향을 모두 담은 제품으로, 그중 블랙과 멀티컬러의 글러터 슈츠는 지드래곤 특유의 넘치는 에너지와 쥬세페 자노티의 클래식한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슈츠다. 로피와 레이스업 2가지 스타일로 출시되는 '쥬세페 포 지드래곤(Giuseppe for G-Dragon)'은 10월 1일부터 갤러리백화점 이스트,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서 판매되며, 전세계 쥬세페 자노티 주요 부티크에서도 선보인다. 문의 02-543-1937



빈폴



빈폴

랑방스포르즈 랑방스포르즈는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디자인의 테크니컬 올백백을 선보인다.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울 소재를 활용한 테크니컬 올백백은 다양한 내부 수납공간으로 실용성을 더했다. 유행 타지 않는 컬러와 스포티 룩, 캐주얼 룩에도 자연스럽게 매치되는 디자인이 매력적



쥬세페 자노티

빈폴

SHOWROOM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린 오벌 워치 스와로브스키는 약 1천7백 개의 크리스탈을 곡선형 베젤에 세팅한 '크리스탈린 오벌 워치'를 소개한다.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유선형 디자인의 이 제품은 착용감이 편안한 것은 물론, 트렌디한 디자인이 액세서리 역할까지 한다. 다양한 아이 템과도 매치할 수 있는 '크리스탈린 오벌 워치'는 화이트, 로즈 골드, 블랙 등 총 5가지 컬러로 전국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1661-9060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전시회 오메가가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메가 부티크 오픈을 기념한 '스피드마스터 전시회'를 개최했다.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2015 바젤월드에서 소개한 스피드마스터 컬렉션 제품을 국내 최초로 대중에게 선보였다. 바젤월드에서 주목 받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아틀라 13 스티브 스누피 어워드',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닥스 오브 더 문 시리즈' 등의 타임피스들 2개의 우주 공간으로 표현한 전시장에서 소개했고, 우주복을 재현한 구조물을 함께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메가 부티크는 국내 오메가 백화점 매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최초로 매장 내에 CS센터를 구성해 고객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2-3449-5917

해밀턴 빌로우제로 해밀턴은 군용 시계에서 영감을

해밀턴



까르띠에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의 워치 메이킹 기술이 녹아 있는 이 제품은 정교함뿐 아니라 아름다움까지 고려했다. 총 4백7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케이스와 사파이어 크리스탈, 블루 스틸 핸즈로 마무리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은 네이비 블루 옐로게이트 가죽의 스트랩을 매치해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문의 1566-7277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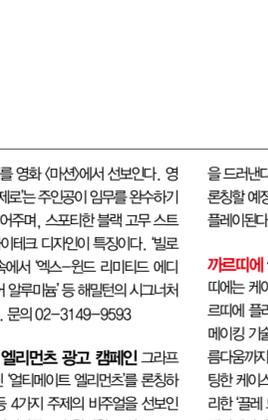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까르띠에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까르띠에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 까르띠에는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레 드 까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출시한다.

까르띠에

JEWEL



오메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전시회 오메가가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메가 부티크 오픈을 기념한 '스피드마스터 전시회'를 개최했다.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2015 바젤월드에서 소개한 스피드마스터 컬렉션 제품을 국내 최초로 대중에게 선보였다. 바젤월드에서 주목 받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아틀라 13 스티브 스누피 어워드',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닥스 오브 더 문 시리즈' 등의 타임피스들 2개의 우주 공간으로 표현한 전시장에서 소개했고, 우주복을 재현한 구조물을 함께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메가 부티크는 국내 오메가 백화점 매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최초로 매장 내에 CS센터를 구성해 고객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2-3449-5917

해밀턴 빌로우제로 해밀턴은 군용 시계에서 영감을

해밀턴

LIFESTYLE



포시즌스 호텔

포시즌스 호텔 서울 객실 패키지 출시 포시즌스 호텔은 예약하는 고객에게 2인 조식과 호텔 내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호텔 크레디트를 제공한다. 포시즌스 호텔은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모여 완성한 고품격 다닝과 최첨단 기구를 구비한 피트니스, 자연광이 들어오는 실내 수영장 등 최고급 시설을 갖췄다. 문의 02-6388-5000

포시즌스 호텔 서울 객실 패키지 출시 포시즌스 호텔은 예약하는 고객에게 2인 조식과 호텔 내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호텔 크레디트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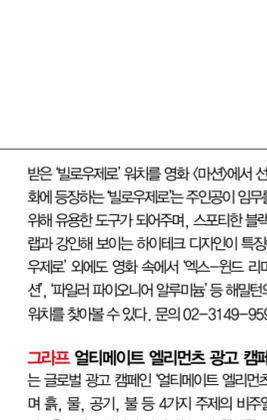
포시즌스 호텔 서울 객실 패키지 출시 포시즌스 호텔은 예약하는 고객에게 2인 조식과 호텔 내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호텔 크레디트를 제공한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 객실 패키지 출시 포시즌스 호텔은 예약하는 고객에게 2인 조식과 호텔 내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호텔 크레디트를 제공한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 객실 패키지 출시 포시즌스 호텔은 예약하는 고객에게 2인 조식과 호텔 내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호텔 크레디트를 제공한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 객실 패키지 출시 포시즌스 호텔은 예약하는 고객에게 2인 조식과 호텔 내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호텔 크레디트를 제공한다.

포시즌스 호텔



바버리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강렬한 태양의 키스를 받은 듯 입술을 핏팅한 1천원의 금액을 기부하는 캠페인에 한 스모키 컬러와 대치해서 영감을 받은 누드 립 컬러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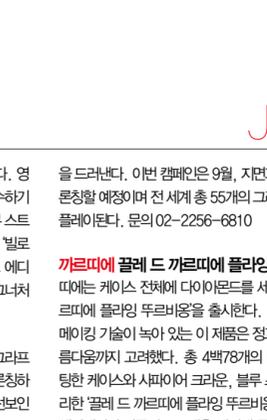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바버리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바버리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바버리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 2015 A/W 런웨이 메이크업 바버리는 2015 A/W 바버리 프로섬 런웨이 컬렉션의 메이크업 룩을 제안한다.

바버리